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59-01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2. 15.

연구수행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이근영(경기도교육연구원)
공 동 연 구 원 엄수정(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경기도교육연구원)
문민지(경인교육대학교)
우라미(이화여자대학교)
장경훈(덕장초등학교)
최은경(대하초등학교)
김지혜(경기도교육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C O N T E N T S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 내용 ····· 7
2. 연구 방법 ····· 8

제2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 13
1. 자유주의 관점 ····· 15
2. 신자유주의 관점 ····· 16
3. 다문화주의 관점 ····· 17
4. 비판이론 관점 ····· 18
5. 탈식민주의 관점 ····· 19
6.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 20
제2절 국내 인권교육 현황 ····· 21
제3절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 분석 ····· 24
1. 교수·학습 사례 분석: 무주초등학교 ····· 24
2. 교재 분석 ····· 30

제3장 |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제1절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리 ····· 49
1. 인권교육의 개념 ····· 49
2.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원리 ····· 54
제2절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 56
제3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 분석 ····· 60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 61
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 62
3. 종합 분석 ····· 68
제4절 인권교과목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 71
1. 1차 델파이 조사 ····· 71
2. 2차 델파이 조사 ····· 84
제5절 소결 ····· 96

제4장 | 초등 인권교육 교육과정

제1절 성격 및 목표 ····· 103
1. 성격 ····· 103
2. 목표 ····· 104
제2절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105
1. 내용 체계 ····· 105
2. 성취기준 ····· 106
제3절 교수·학습 및 평가 ····· 106
1. 교수·학습 ····· 106
2. 평가 ····· 108

제5장 |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제1절 개요 ····· 113
1. 기본 방향 ····· 113
2. 개발 과정 ····· 114

제2절 주제 선정 및 단원 구성 ····· 123
1. 주제 선정 ····· 123
2. 단원 구성 ····· 125
제3절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구성과 특징 ····· 128
1. 교과서 모델 ····· 128
2. 지도서 모델 ····· 129

제6장 | 교과용 도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_ 137

표 목차

T A B L E S

〈표 2-1〉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 14
〈표 2-2〉 '인권' 교과목 학년별 수업 계획 ····· 26
〈표 2-3〉『교사. 인권교육. 하다』의 초등학교 영역별 수업 주제 ····· 32
〈표 2-4〉 초등학교『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단원 구성 ····· 34
〈표 3-1〉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원리 ····· 54
〈표 3-2〉 UN(2004/2006)의 단계별 인권교육 내용체계 ····· 56
〈표 3-3〉 구정화 외(2020)의 단계별 인권교육 내용체계 ····· 58
〈표 3-4〉 엄수정 외(2021)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 59
〈표 3-5〉 2022 개정 각론의 인권교육 내용 ····· 62
〈표 3-6〉 델파이 패널의 주요 경력 ····· 72
〈표 3-7〉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1차 델파이 조사) ····· 73
〈표 3-8〉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1차 델파이 조사) ····· 78
〈표 3-9〉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1차 델파이 조사) ····· 78
〈표 3-10〉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2차 델파이 조사용) ····· 85
〈표 3-11〉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1차 델파이 조사) ····· 86
〈표 3-12〉 3~4학년군 인권교과서의 단원명, 주요내용 및 전문가 의견 ····· 88
〈표 3-13〉 5~6학년군 인권교과서의 단원명, 주요내용 및 전문가 의견 ····· 90
〈표 3-14〉 본 연구의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 내용 체계 ····· 98
〈표 5-1〉 개발진 구성원 ····· 114
〈표 5-2〉 연구진 검토 의견 및 수정·보완 내용 ····· 115
〈표 5-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주요 수정·보완 내용 ····· 118

그림 목차

T A B L E S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10
[그림 2-1] 무주초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인 구조 ····· 25
[그림 2-2] 무주초의 '인권' 교과목 단원계획서 예시 ····· 28
[그림 2-3] 무주초의 '인권' 교과목 수업지도안 예시 ····· 29
[그림 2-4] 『교사. 인권교육. 하다』에 제시된 활동자료 예시 ····· 31
[그림 2-5] 초등학교 3~4학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예시 ····· 35
[그림 2-6] 유럽평의회의 『Compass』에 제시된 인권교육 활동 자료 예시 ····· 39
[그림 2-7] 유럽평의회의 『Compass』에 제시된 인권교육 활동 요약표 일부 ····· 40
[그림 2-8]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수자와 관용'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 43
[그림 5-1] 교과서 모델 구성요소와 구성 체제 ····· 128
[그림 5-2] 교과서 구성 방식 ····· 129
[그림 5-3] 지도서 모델 구성방식 ····· 13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발전

두 차례의 파멸적인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하여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4).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교육의 관계에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6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26조 2항에서는 교육이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지침과 협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UN은 1994년에 '유엔인권교육10년', 2004년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11년에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을 통해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침해의 예방과 보편적인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about), 인권을 통한(through), 인권을 위한(for) 교육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엄수정 외, 2021).

한편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경험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2001년에 국가인권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국가 수준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데, 이때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6조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한국에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전후로 기존의 학교문화에서 학생은 보편적 인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1997년에는 「교육기본법」이, 2007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인권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하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관련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권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더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했다.

나. 기존 학교 인권교육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교 인권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권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권교육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김자영 외, 2019; 구정화 외, 2020; 엄수정 외, 2021). 학교 인권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인권교육이 특정 교과에서 다루는 학습 주제의 하나로 축소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구정화, 2018; 구정화 외, 2020; 구정화, 박새롬, 2019; 김혜진, 2018; 이선영, 권혜정, 2017). 국가교육과정은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일부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회 및 도덕 교과에서 관

련 내용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인권교육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러 학교들에서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쌍철 외(2019)는 전국의 301개교 학생 13,524명과 교사 5,886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 학교들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89.7%)하였으나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루어진다고 보고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요구하는 학생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이정연 외(2020)는 일회적이고 강의 위주의 인권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정연 외(2020)에 따르면, 경기도 교원의 거의 대부분(97.9%)이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학기당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가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이 특정 교과 중심 혹은 교과 외 시간에 진행되는 파편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일부 내용은 중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중요하지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구정화 외(2020)는 인권 문제가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인권 개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엄수정 외(2021)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학교 인권교육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차원의 한계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인권 담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엄수정 외, 2021).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포스트휴먼과 트랜스 휴먼, 전 지구적 생태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며,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향유하는 데 있어, 개인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및 기후 위기 역시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데, 생태 및 기후 위기는 토착민, 노약자, 빈곤층, 섬나라 국민, 미래세대 등 특정 집단의 존엄과 생존에 더욱 위협적이다.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국가주의, 민족주의 경향성으로 차별과 혐오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UNESCO(2022)에서도 전술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는 데 교육이 갖고 있는 변혁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교육이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와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하고,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rs)이자 공동재(common goods)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독립 과목으로서의 인권교육이 갖는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 인권교육은 일부 교과나 생활교육 차원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생성된 인권 담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므로, 인권 주제를 독립적인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구정화 외, 2020; 엄수정 외, 2021). 확장된 인권 개념을 토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내용 및 방법을 체계화한다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이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시켜, 학교장이 인권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물론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인권 관련 내용 및 성취기준이 축소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장 선택 과목 개설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은 인권교육을 독립 과목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겠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및 독립적인 인권 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 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단위 학교 차원의 인권 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 교과용 도서 모델을 개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인권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학교에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 과목 및 교과용 도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실천 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인권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권 과목 및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나.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

인권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검토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확장된 인권 개념을 반영한 인권교육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현장 교원 및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내용 체계의 실천적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전술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학년 간 발달 차이가 커 두 개 학년 이상을 한 집단으로 묶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군을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 개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주당 한 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이 가능한 형태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구성 체제(대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단원마무리 등)에 준하여 구성하되, 각각의 단원을 특정한 계기수업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여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이 흥미, 재미, 유의미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정 교과 위주의 분절적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통합적인 교수·학습 접근을 취하고, 기존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언어, 경험, 흥미, 요구, 지식, 선호하는 학습 양식을 고려한 포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조사

인권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의 이론적, 정책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조약, 지침, 관련 문건 및 선행연구 자료 검토·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및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를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분석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 델파이조사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 쟁점 사항, 원칙 및 내용 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현장 교원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20인을 참여 패널로 구성하여, 초등학교용 인권 교과서에 담길 인권에 대한 관점, 쟁점 사항, 내용 체계 구성요소의 적절성, 초등학교용 인권 교과서의 구성 방식, 초등학교용 인권 교과서에 담길 소재와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2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 타당성 검토하였다.

다.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 운영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을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 6인을 섭외하여 학년군별(초등 3~4학년, 5~6학년)로 각 3명씩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을 운영하였고, 연구진 중 2인이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의 리더로 참여하여 문헌 연구 및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리된 인권교육의 관점, 원칙 및 내용체계를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에 반영하였다.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주당 한 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구성 체제(대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단원마무리 등)에 준하여 구성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

인권교육의 관점, 원칙, 현황 및 정책 분석, 내용체계 구성,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인권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0인의 자문을 구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절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분석	• 인권교육의 다양한 관점, 쟁점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 문헌조사
⇩		
인권교육 현황 및 교수·학습 사례, 교재 분석	• 인권교육 관련 현황 및 학교 인권교육 실태 분석 • 인권교육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 분석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	• 인권교육 개념 및 원칙 정립 • 기존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 포함) • 인권교육 세부 영역 및 내용 구성 요소 도출	- 문헌조사 - 델파이조사
⇩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검토 •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활용 방안 제언	-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 운영 - 전문가 자문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제2절 국내 인권교육 현황
제3절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 분석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강화에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한다. 그 이후로도 UN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여러 국제인권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인권교육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개념화된다. 2011년 「UN인권교육훈련선언」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그것을 인권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권 강화를 위한 것이다. UN은 존엄성, 평등, 자유, 평화, 관용, 사회정의, 반차별 등을 인권교육에 있어 주요 가치로 제시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실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교수·학습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범주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Tibbits(2002)는 인권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 '일반적인 가치 및 인식 모델(general value and awareness model),' '책무성 모델(accountability model),' '변혁적 모델(transformational model)'로 나누어 설명한다. Tibbits(2002)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모델은 교사가 학생과 동료 교직원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인권 친화적인 방식의 관계 맺음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모델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은 교수·학습의 중점이 이해, 태도, 행동에 있는지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

다.

Tibbits(2008)는 이후 연구에서 국가 및 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 상황에 따라 인권교육의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전이나 갈등 상황이 주요 사회 문제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법과 정책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떠한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다. 억압적인 정권이 있는 국가에서는 권한 이양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Tibbits, 2008). 민주주의 제도가 갖춰져 있으나 빈곤이 주요 사회 문제인 경우, 인권교육의 초점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두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부유국의 경우, 사회에서 어떠한 배제와 차별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범주화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갈래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어떠한 존재-인식론적 가정을 토대로 인권교육을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자유주의 관점, 신자유주의 관점, 다문화주의 관점, 비판이론 관점, 탈식민주의 관점,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다음의 〈표 2-1〉은 이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다만, 인권교육 관점에 대한 범주화와 각 범주에 대한 설명은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관점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중첩되기도 한다.

〈표 2-1〉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관점	인권교육의 중점
1	자유주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보편적, 선험적 권리를 중심으로 교육
2	신자유주의	사적 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교육
3	다문화주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집단 간 조화를 강조하는 인권교육
4	비판이론	젠더, 계층, 인종 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억압을 조명
5	탈식민주의	인권에 대한 서구 중심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강조
6	포스트휴머니즘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논의에 포함

1. 자유주의 관점

자유주의는 인권교육에 있어 지배 담론으로 기능한다. Jerome, et al.(2015)은 국제기구나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은 주로 자유주의 인권 사상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 인권 사상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독립적인 개인의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운다(엄수정 외, 2021; Jerome, et al., 2015). 자유주의 인권 사상은 Hobbes, Locke, Rousseau의 자연법 사상 및 사회 계약설을 토대로 하며, 유럽 및 미국에서 발생한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자연권 사상이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정당화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봉건제에 따른 신분적 억압에서 개인을 해방시켜 인간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초기 목표로 삼았고, 이는 자유를 근대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두는 배경이 되었다. 조주현(2019)은 자유주의 시민성의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자유주의는 특수적이고 임의적인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의 형태로 자행된 모든 종류의 집단적 차별을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평등' 의식을 지향한다.
- 자유주의는 공동선이나 포괄적 선이 불일치하게 되어 공동체 간 또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 전쟁과 같은 배타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예방 또는 극복해주는 '관용'의 덕목을 요구한다.
-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 자율적으로 선택 및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보장한다.
- 자유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중시 여기되 그것을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정도로서의 '계몽된 자기이익'의 윤리를 실천한다.
- 자유주의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1차적 선호보다는 2차적 선호를 선택할 줄 아는 합리적 '분별'의 덕목을 강조한다.
- 자유주의는 개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한다.

출처: 조주현(2019, p. 5).

자유주의는 악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선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소극적 국가관과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을 중시 여기는 대의제 정부를 지지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할 때 전제로 하는 것은 천부인권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태어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 인권교육의 기본 가정이다. 이러한 권리는 계층, 성, 인종, 문화, 언어,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인권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공통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대한 자유주의 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자유주의 인권교육이 상정하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이며 독립적인 인간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Jerome et al., 2015; Zembylas & Keet, 2019),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이 비서구권 제도와 문화의 독특한 맥락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Ahmed et al., 2019; Zemblyas, 2017). 인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의 관점은 실제로 국가가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권리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2. 신자유주의 관점

신자유주의는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로 정의되며 197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는 인권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주의 인권 사상은 시민권적 사회계약을 상정하고 시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논리로 시작되었다(조효제, 2015). 인권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사적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적 개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인권교육은 사적 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교육을 말한다(Pennington, 2014). Jerome et al.(2015)은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인권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편적 평등의식과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강조하기보다 사적 권리 침해 여부로 인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인권교육의 장(場)에 침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자유주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조효제, 2015).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중심으로 평등의 가치보다 자유의 가치를 더 우선하며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3.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근거한 기존 인권 개념에 문제제기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다양하게 개념화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회 혹은 현 시대에서 다양성을 지닌 개인 및 문화 집단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말한다(Banks, 2021).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부터 변혁적인 관점까지 포괄하는 '우산 개념'이지만,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문화 집단 간 공존을 강조한다(Banks, 2021). 인권 개념은 서구에서 제안되었으나 그것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편적 의미를 획득했다(최성환, 2011).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편적 규범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인 문화 차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전통의 고유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한다. 최성환(2011)이 제시한 예를 차용하면, 이슬람의 「카이로 선언」은 인권 사상과 모순된다. 「카이로 선언」에 따르면 개인적 권리와 자유 위에 신이 창조한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가 존재한다.

다문화주의의 갈래가 다양한 만큼 다문화주의 인권교육의 의미와 실천 역시 다양하다(Banks, 2021). 인종, 문화, 언어적 차이와 다름,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과 환경 구성을 인권과 연관시키기도 하며(Potvin & Beanny, 2013), 이때 성적지향, 종교, 장애를 토대로 한 소수집단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비판

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할 때, 편견과 특권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소수집단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혁이 필요한지 다루기도 한다(Tibbitts, 2005). 세계시민교육과 연결되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이해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범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인권교육은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을 토대로 하는데, 인간 주체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 접근에 대해 비판받는다(Zembylas, 2017; Zembylas & Keet, 2019). 개인 혹은 사회 집단을 넘어 지역 및 국가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해 깊이 주목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Becker, 2021; Osler, 2015; Zembylas, & Keet, 2019).

4. 비판이론 관점

비판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 철학이다. 비판이론은 Frankfurt 학파에 영향을 받아 등장했으며, 다양한 철학적·실천적 흐름과 만나 다양하게 변주되어오고 있다. 여성학, 장애학, 비판인종이론, 퀴어이론, 탈식민주의 등과 결합하기도 한다. 다양한 버전의 비판이론은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교육학을 등장시켰다. Freire, Apple, Giroux 등이 대표적인 비판교육학자이다. 많은 학자들과 실천가들은 비판이론 관점에서 기존 인권교육의 개인주의적 접근을 비판한다. 사회 집단 간의 권력 관계보다는 개인의 인권 침해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이다(Butler, 2012; Roche, 1999; Tibbitts, 2005).

비판이론을 토대로 한 인권교육은 계층, 성,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방식의 억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포용과 사회 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엑티비즘(activism),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방식의 인권교육이다. 이는 Jerome et al.(2015)의 인권교육 분류에서 '변혁적 행동을 위한 인권교육,' Provin과 Beanny(2013)의 분류에서 '변혁적 관점,' Tibbits(2002)의 분류에서 '변혁적 모델'과 연결된다. 비판교육을 토대로 한 인권교육은 다문화주의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그 한계로 지적받는

다. 권력, 지식, 담론, 행위성, 자유 등에 대한 휴머니즘(humanist) 가정을 이유로 비판받기도 한다.

5. 탈식민주의 관점

인권교육에 있어 탈식민주의 접근도 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남긴 문화적 유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사상과 실천적 운동을 의미한다. 탈식민주의 역시 존재론적·인식론적 가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둘러싼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한다. 대표적인 탈식민주의자 중 하나인 Spivak(2004)은 기존의 인권 개념이 서구의 지배 문화의 틀 안에서 규정되어 왔으며 인권 개념이 사회진화론적(social Darwinism) 목표를 가진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가장 적합한 개체(the fittest)가 부적합한 개체(the unfit)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기존의 인권 개념은 비서구권의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Yang(2015)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논의는 '대문자 인간(Man)'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대문자 인간'은 백인성(whiteness)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국가들을 바라보는 계몽주의적 시선은 식민주의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인권교육은 인간에 대한 본질론적이고 보편주의적 접근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인권에 대한 유럽 중심의 개념화 및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Becker, 2021; Osler, 2015; Zembylas, & Keet, 2019). 또한, 개인주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가 야기하는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인권교육의 범위를 확장시킨다(Becker, 2021; Moghli, 2020). 탈식민주의자들은 보다 정의로운 인권교육을 위해 맥락성(contextuality), 복수성(plurality), 독특성(uniqueness), 관계성(relationality)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dami, 2014; Ahmed et al., 2019; Coysh, 2014; Zembylas, 2017). 탈식민주의 인권교육이 '대문자 인간'이라는 규범적인 잣대와 그것의 통제성과 배제성을 비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너머 세계의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6.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포스트휴머니즘 역시 다양한 갈래의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학 및 의료 기술의 진전을 토대로 인간 능력의 증강을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부터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제기하며 비인간 타자까지 논의의 대상을 확장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까지 모두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하 '포스트휴머니즘')은 '대문자 인간' 개념에 대한 탈식민주의 논의를 더욱 극단으로 밀고 나간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인간'을 개념화함에 있어 유럽중심주의(Eurocentricism)를 비판한 것에 더해,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들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를 비판한다(Braidotti, 2013).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인권 개념은 휴머니즘을 토대로 이성과 합리성, 자유의지를 지닌 '근대 인간'을 상정하며(Zembylas & Bozalek, 2014),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인간상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관련 논의에서 배제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통념에 대해 재고하도록 지원한다.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들은 인간을 비인간 동물이나 식물, 물질 등과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예외적이고 우월한 종(種)으로 보는 휴머니즘 접근이 비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착취적 태도를 형성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먼 인권교육은 문화와 자연, 정신과 물질, 생명과 비생명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며, 일원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모든 존재를 독립적 개체가 아닌 관계적 존재로 가정한다. Zembylas와 Bozalek(2014)은 개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호관계적이고 상호생성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인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 복잡한 연결망 안에서 관계 맺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철학적 흐름이므로 포스트휴먼 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권 개념이 애초에 휴머니즘을 토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인권을 어떻게 재개념화해야 하고 인권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급진적인 상상과 적극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관점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일부 중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가 취하는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한다. 특히,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담론에서 벗어나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집단 간 권력 관계의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권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논의해왔던 관점을 넘어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하자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제2절 | 국내 인권교육 현황

한국에서 인권교육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출범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을 수립하며 5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후 제2차(2012-2016), 제3차(2018-2022) 총 세 차례 발표되었다.

2018년 발표되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을 '국민일반 대상 교육', '학교 교육',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개발 및 관리한다. 둘째,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일반학교의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계획안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같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학교 인권교육의 현황은 어떠한지 인권교육 실태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인권교육은 유관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인권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은 반면,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경우는 3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생활 지도 시간'(78.0%), '교과 수업 시간'(69.3%),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63.4%) 순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교사들이 조회·종례, 상담 시간이나 동아리 및 학급회의와 같은 비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교과 수업 시간' (72.6%),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40.9%), '생활 지도 시간'(22.8%) 순으로 응답하였다. 김영지 외(2022)가 실시한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해 사회나 도덕 등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3.7%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35.8%,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11.4%,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4.1%, 중 76.4%, 고 54.4%)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정 외(2021)가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인권교육의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위정 외(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5.2%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시 주체로는 '담임교사' 49.4%, '외부 전문 강사' 26.6%, '교사와 외부 강

사’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방식으로는 영상시청 수업이 69.0%, 교사 또는 강사의 설명과 학생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이 25.6%, 토론식 수업은 3.4%, 모둠 수업은 2.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상시청이나 강의식 수업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자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인권교육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학교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권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 관련 지식 및 개념 습득과 같은 인지적 학습에 초점을 두는 반면, 실제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실천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이 인지적 이해뿐 아니라 실천 능력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교교육에서 보다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나 시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인권교육 목표의 명확성이나 내용의 체계성,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이나 사회 등 인접 교과 수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권 자체의 교육내용 체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교과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

둘째,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식 및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영상 시청이나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나 내용이 주로 인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인권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과 자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학

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비교과 시간에 인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생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구성원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의 개념이나 목적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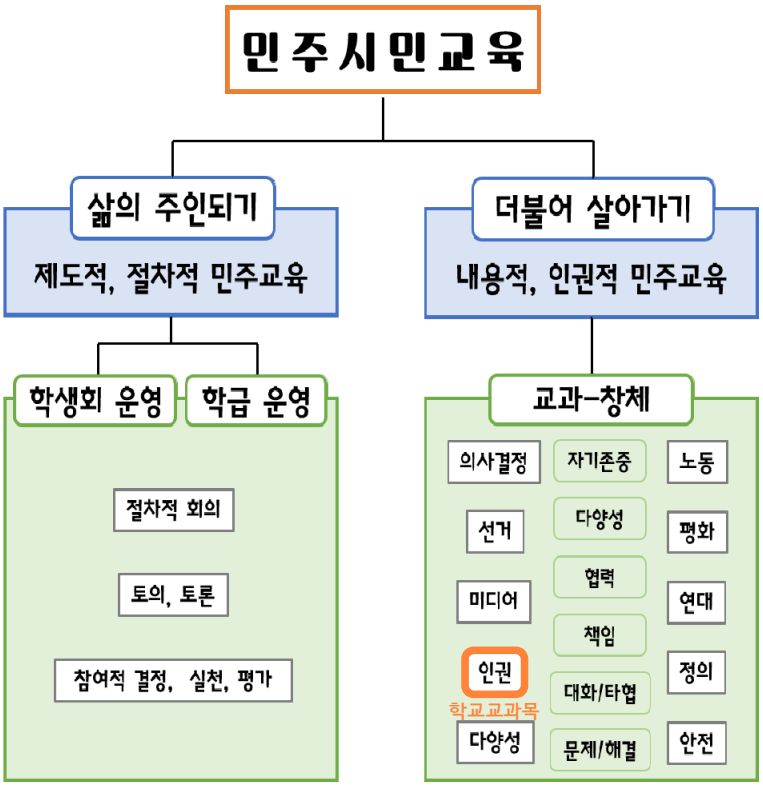
제3절 |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 분석

1. 교수·학습 사례 분석: 무주초등학교

무주초등학교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혁신학교이다. 2018년 처음 혁신학교를 시작한 이후 무주초에서는 약 3년간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해 왔다. 이때, 주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경기도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바탕으로 10개의 주제를 정하면서도 당해 연도 담임교사가 2~4개의 주제를 결정하여 주제중심 통합 수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주초의 교사들은 주제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배움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공립학교의 특성상 발생하는 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교과목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학교교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들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무주초의 교사들은 그동안 10여 개의 다양한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기저에 인권이 자리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의식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경우 학생회나 민주적 학급 운영을 통해 운영하고, '인권'을 학교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아래의 [그림 2-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무주초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는 학생회와 학급 운영을, 내용 측면에서는 인권을 학교교과목으로 개설하였다.



출처: 무주초(2023a, p. 1)

[그림 2-1] 무주초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인 구조

무주초 인권 교과목의 목적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의 상황에서 인권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인권 감수성 함양”이다(무주초, 2023a, p. 2). 이를 위한 내용 체계는 구정화 외(2020)가 개발한 내용을 따랐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무주초의 2023년 학년별 수업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2〉와 같으며, 학년별로 20차시로 편성 및 운영되고 있었다.

〈표 2-2〉 '인권' 교과목 학년별 수업 계획

학년	주제	교육 내용	주요 학습요소	차시
1	서로 다른 '나'가 함께 살고 있어요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인간 존엄성의 의의 – 다양성 존중	자존감, 인간 존엄성, 권리 존중	10
	나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인권 존중을 위한 행동, 참여	10
2	우리 모두 소중해요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인권의 의미와 특징 – 인간 존엄성의 의의	인간 존엄성의 의의	10
	달라서 좋아요	• 인권의 다양한 가치 – 다양성 존중 – 차이와 차별	다양성 존중	10
3	나, 너 함께 행복한 우리를 위해 노력해요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 다양성 존중,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학교, 사회, 지구촌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등)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인권의 의미와 개념, 아동 인권, 인간 존엄성, 인권 존중을 위한 행동, 인권 문제 해결, 참여	10
	L.I.H(Let's make Inclusive & Happy Family) 프로젝트 : 포용적이고 모두가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다양성 존중,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가정에서의 인권 문제, 사회의 인권 문제, 인권 문제 해결, 참여, 인권 존중을 위한 행동	10
4	혐오 표현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다양성 존중,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학교, 사회, 지구촌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편견, 고정관념, 차별,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10
	어르신, 행복하시죠?	•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 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 –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참여와 연대 – 시민참여 방법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사회적 약자(노인)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노인인권 교육	노인 인권	10

학년	주제	교육 내용	주요 학습요소	차시
5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사회적 약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인권 존중	10
	다문화 사회의 인권 존중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주민, 난민 등)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다문화 사회, 이주민, 난민, 편견과 차별, 문화 다양성	10
6	나와 우리를 가꾸는 학교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가정, 학교, 사회, 지구촌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	학생인권, 권리 표현, 권리 존중, 인권 문제 해결	10
	우리 삶 속의 노동	•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 사회적 약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권, 자결권	10

출처: 무주초(2023, p. 11)

무주초에서는 인권 과목의 편성 및 운영뿐만 아니라 전체 단원계획서 및 수업지도안도 함께 개발하였다. 아래의 [그림 2-2]와 [그림 2-3]은 무주초에서 개발 및 공유하고 있는 2학년 단원계획서와 수업지도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단원계획서의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필요성, 영역 및 성취기준 등을 포함한 '단원의 구성'과 10차시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고 있는 '단원의 설계' 그리고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평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지도안의 경우에는 실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2-1 <인간존엄성> **내가 나라서 소중해요.**

가. 단원의 구성

단원의 필요성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2학년의 인권수업은 존엄성의 의미를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소중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아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기 삶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자기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도록 한다.
영역	<Ⅰ.인권의 의미와 역사> - 인간 존엄성의 의의 - 자유와 평등
성취기준	①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②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한다.
배정 교과(차시)	바른 생활(3), 즐거운 생활(5), 슬기로운 생활(2)

나. 단원의 설계

차시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주요 자료 및 사례
1	존엄성의 의미 인식하기	1. '강아지 똥' 그림책 읽기 - 강아지 똥의 고민 생각해보기 - 강아지 똥의 등장인물의 생각알아보기 - '누구나 소중하다는 말'의 의미 생각해보기 2. '강아지 똥' 등장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3. 등장인물에게 응원의 말 전해보기	▸'강아지 똥' 그림책 읽기
2	소중한 나를 인식하기	1. '너는 기적이야' 책 읽고 활동하기 2.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소중히 하기 3. 나의 소중함 인식하기	▸'너는 기적이야' 그림책
3~4	나의 모습 바로보기	1. 나의 장단점 찾기 2. 내 모습 자세히 알기 3. 미래의 나의 모습 그려보기	
5~6	소중한 나를 위해 필요한것	1. 나의 행복조건 알아보기 2. 우리의 행복조건 알아보기 3. 사람의 인권 생각해보기	
7~8	내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기	1. 자신의 하루 생활 되돌아 보기 2. 스스로 결정하는 것의 중요함 알아보기 3. 스스로 결정하는 하루 만들기	
9~10	내 행동에 책임갖기	1.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살펴보기 - 하루 동안의 우리 생활 2. 타인의 권리 살펴보기 3. 권리와 책임이 함께함을 이해하기 -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 생각해보기 -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생각해보기 -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 생각해보기	

다. 평가 계획

성취기준	평가 방법	성취 수준	
①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관찰	능가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
		도달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가 다소 부족함.
		분발 중	자신이 소중한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②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한다.	수행	능가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음.
		도달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태도가 다소 부족함.
		분발 중	자아존중감이 부족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출처: 무주초(2023a, pp. 36-37)

[그림 2-2] 무주초의 '인권' 교과목 단원계획서 예시

1~2차시 모두 같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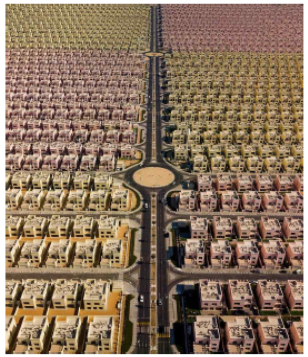
배움 목표	다름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다양함의 필요성을 안다.
수업 전략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친구와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성향으로 불편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같아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름의 필요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다양함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다양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학습 자료	그림책, ppt, 학습지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 도움말(활동 구성 의도 및 팁, 구체적인 활동 방법, 유의점 등) ▸ 주요 발문(활동 진행 및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발문)	◉ 자료
도입	■ 동기유발하기 ○ '나의 글은 어디에' 게임하기 ○ 톨킷활동19의 '나의 바나나는 어디에?게임을 글로 변형시킨 게임 ※ 각각 글 한개씩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글을 자세히 관찰한 후 다시 나의 글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 여러분의 자기 '글'을 찾을 수 있나요? ▶ 왜 자기 '글'을 찾을 수 없을까요? 또는 자기 '글'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오늘은 같음과 다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모양이 같아서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므로 찾아도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 학습 문제 알아보기 ○ 학습 문제 찾기 다름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다양함의 필요성을 안다. ■ 학습 활동 계획하기 [활동1] '나의 글은 어디에' 으로 게임하기 [활동2] '똑같은 집'보며 드는 생각 나누기	◉ 글, 글을 담을 바구니나 접시
전개	■ [활동1] '나의 글은 어디에'으로 게임하기 – 아이들에게 '글'의 껍질을 깐후 다시 자기 '글'을 찾아보도록 한다. 자기글은 잘 살피되 껍질을 까거나 먹지 않도록 한다. 교사가 글을 한데 모으고 자기 글을 찾아보도록 한다. ▶ 처음에 글을 어떻게 알아 보았나요? ▶ 겉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속모양은 어떨까요? ▶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 사람들이 속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 놀이 방법 1. 놀이를 하기 위해 글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1명당 1개 2. 아이들에게 자기 '글'을 살펴보게 한다.(아이들은 자기가 글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을 살펴본거나 한계보는 활동 등 만을 하게 한다.) 3. 몇분의 시간을 준후 커다란 그릇에 담고 자기 '글'을 찾도록 한다.(많은 아이가 자기 '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동기유발에서 활동 4. 아이들에게 글을 깐후 다시 그릇에 담게 한다. 5. 다시한번 자기 '글'을 찾도록 한다. (이번에는 훨씬 찾기 힘들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 글, 글을 담을 바구니나 접시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 도움말(활동 구성 의도 및 팁, 구체적인 활동 방법, 유의점 등) ▸ 주요 발문(활동 진행 및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발문)	◉ 자료
정리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 활동을 한 '글'처럼 모두가 같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활동2] '똑같은 집'보며 드는 생각 나누기 ○ 사진보며 내용 나누기 ▶ 사진은 외국의 집입니다. 집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 여러분은 이런 집에 살고 싶은가요? ▶ 그다면 왜 그런가요?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만일 이곳이 여러분들의 집이라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 모둠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정리하기 ▶ 오늘은 '모두 같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오늘 활동을 하고 난 느낌은 어떤가요? ▶ 우리가 같은 모습, 이름, 성향,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거에요. 다음 시간에는 다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 1(참고1)

참고 자료

참고 1. 그림



출처: 무주초(2023a, pp. 36-37)

[그림 2-3] 무주초의 '인권' 교과목 수업지도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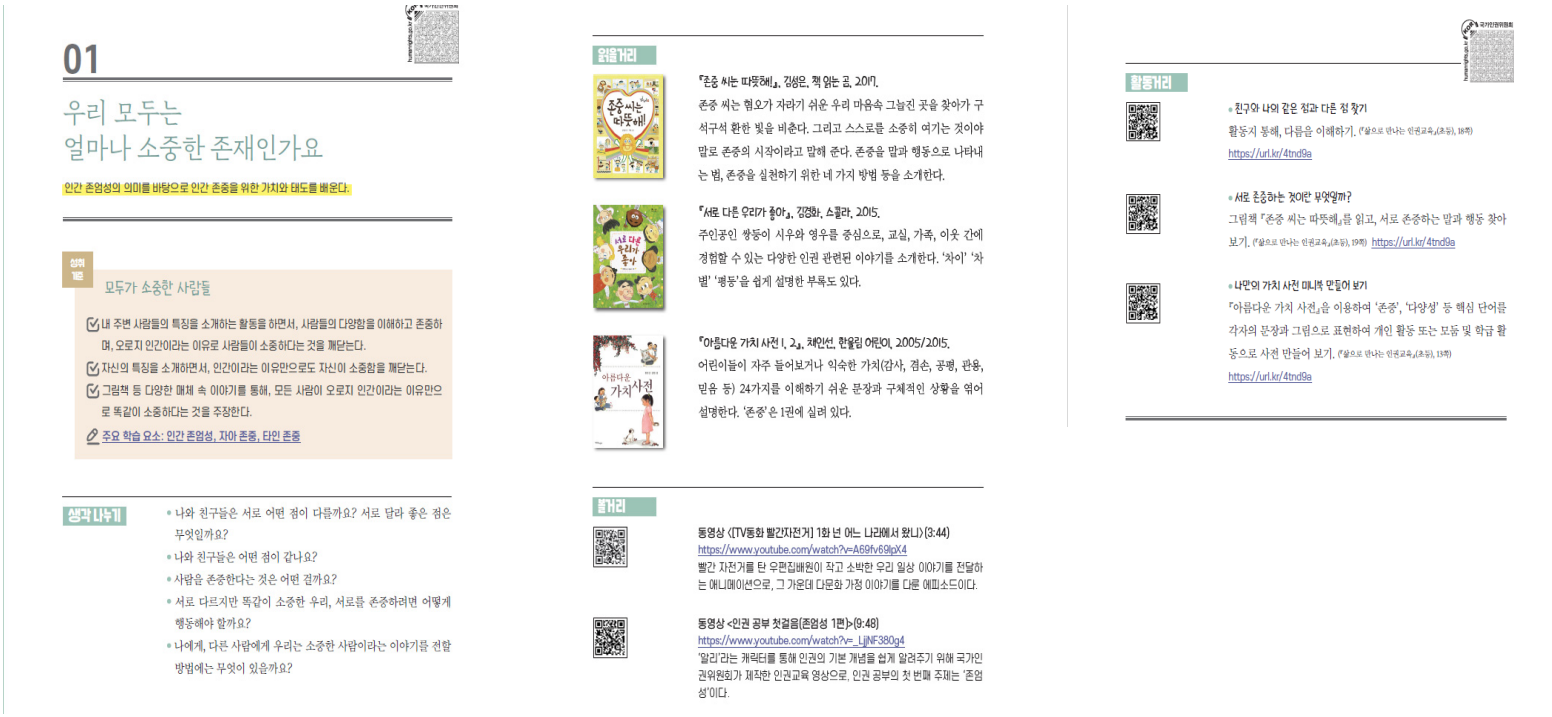
2. 교재 분석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사. 인권교육. 하다』 안내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구정화 외(2020)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 과목 설정' 및 '교과 수업에 인권 관점 적용'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반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구정화 외, 2020). 구정화 외(2020)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인 『교사. 인권교육. 하다』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이 안내서는 '프롤로그', 'Part 1', 'Part 2'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롤로그_학교, 인권교육 하다'에서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나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바 등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서의 본격적인 내용은 크게 2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Part1_인권 과목, 그리다'에서는 인권 교육을 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Part2_인권 과목, 해 보다'에는 실제로 수업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Part1_인권 과목, 그리다'에서는 범교과 주제로서의 인권뿐 아니라, 과목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목으로서 인권 교육의 교육목표, 내용체계를 제시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루어졌던 구정화 외(2020)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art2를 중심으로 해당 안내서의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Part2_인권 과목, 해 보다'에서는 교사가 인권 수업을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Part2의 체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 3개씩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그 구성방식은 동일하다. 자세한 구성 방식은 아래의 [그림 2-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01

우리 모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배운다.

성취 기준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

- 내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 자신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이 소중함을 깨닫는다.
-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 속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주요 학습 요소: 인간 존엄성, 자아 존중, 타인 존중

생각 나누기

- 나와 친구들은 서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서로 달라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나와 친구들은 어떤 점이 같나요?
-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한 우리, 서로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전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읽을거리

『존중 씨는 따뜻해』, 김성은, 책 읽는 곰, 2017.
존중 씨는 혐오가 자라기 쉬운 우리 마음속 그늘진 곳을 찾아가 구석구석 환한 빛을 비춘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존중의 시작이라고 말해 준다. 존중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법,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우리가 좋아』, 김경화, 스콜라, 2015.
주인공인 쌍둥이 시우와 영우를 중심으로, 교실, 가족, 이웃 간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차이' '차별' '봉둥'을 쉽게 설명한 부록도 있다.

『아름다운 가치 사전 1, 2』, 채인선, 한울림 어린이, 2005/2015.
어린이들이 자주 들어보거나 익숙한 가치(감사, 겸손, 공평, 관용, 믿음 등) 24가지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구체적인 상황을 엮어 설명한다. '존중'은 1권에 실려 있다.

볼거리

동영상 <[TV동화 빨간자전거] 1화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3:44)
https://www.youtube.com/watch?v=A69fv69lpX4
빨간 자전거를 탄 우편집배원이 작고 소박한 우리 일상 이야기를 전달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그 가운데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이다.

동영상 <인권 공부 첫걸음(존엄성 1편)>(9:48)
https://www.youtube.com/watch?v=_LjjNF380g4
'알리'라는 캐릭터를 통해 인권의 기본 개념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교육 영상으로, 인권 공부의 첫 번째 주제는 '존엄성'이다.

활동거리

- 친구와 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찾기
활동지 통해, 다름을 이해하기. (『살으로 만나는 인권교육』(초등), 18쪽)
https://url.kr/4tnd9a

- 서로 존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림책 『존중 씨는 따뜻해』를 읽고,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 찾아보기. (『살으로 만나는 인권교육』(초등), 19쪽) https://url.kr/4tnd9a

- 나만의 가치 사전 마니맥 만들어 보기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이용하여 '존중', '다양성' 등 핵심 단어를 각자의 문장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개인 활동 또는 모둠 및 학급 활동으로 사전 만들어 보기. (『살으로 만나는 인권교육』(초등), 13쪽)
https://url.kr/4tnd9a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 pp. 27-29)

[그림 2-4] 『교사. 인권교육. 하다』에 제시된 활동자료 예시

먼저, 수업 주제와 구체적인 수업 목표가 제시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주요 학습 요소가 함께 제공된다. 구체적인 활동 자료는 '생각 나누기', '읽을거리', '볼거리', '활동거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생각 나누기'에서는 수업에서 교사가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을 진행하기에 유용한 질문거리나 토론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읽을거리'와 '볼거리'에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 자료를, '활동거리'에서는 해당 주제로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와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교사가 해당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루거나 활동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사. 인권교육. 하다』는 인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토대로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자료를 링크나 QR코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활동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제작한 자료들을 소개하여 제공하다보니 제시된 링크나 QR코드 중 일부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안내서에서 다루는 자료 및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안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3개의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활동자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내용, 관점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자료와 고학년을 위한 자료가 각각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2-3〉와 같다.

〈표 2-3〉 『교사. 인권교육. 하다』의 초등학교 영역별 수업 주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1	우리 모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인권은 왜 중요한가?
2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인권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리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인권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양한 인권문제, 우리가 할 일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주제로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인권이 필요해요', '인권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이며, 고학년을 위한 주제로는 '인권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누리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다양한 인권문제, 우리가 할 일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의 가치나 중요성, 의미, 유형 등 인지적인 내용과 함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행동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안내서에서는 인권을 주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예컨대,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생각 나누기 질문, 활동거리, 읽을거리, 볼거리 등에서 자주 다루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제시된 생각 나누기 질문인 "'다르다'와 '틀리다'는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 아니라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제시된 볼거리 '차별일까 차이일까' 등도 대표적이다. 이 안내서가 인권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이 전반적으로 강조된 반면에 인권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의 경우에는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이나 자료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 관점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취기준 '사람다운 삶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권리' 관련 활동이 대표적이다. 해당 활동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나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영향을 줄까?",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의 행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더 필요한 권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등 여전히 인권을 인간, 특히 인간의 행복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젠더나 계층, 인종 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억압을 조명하는 비판이론 관점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성취기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과 같이 일부 활동에서는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기구, 국제기구에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 나누

기 질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부분의 방안들은 개인의 인식 개선, 태도 변화 등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성취기준과 관련한 활동거리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약속을 도화지에 하나씩 쓰고 꾸미는 '인권선언문 만들기'가 제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나. 경기도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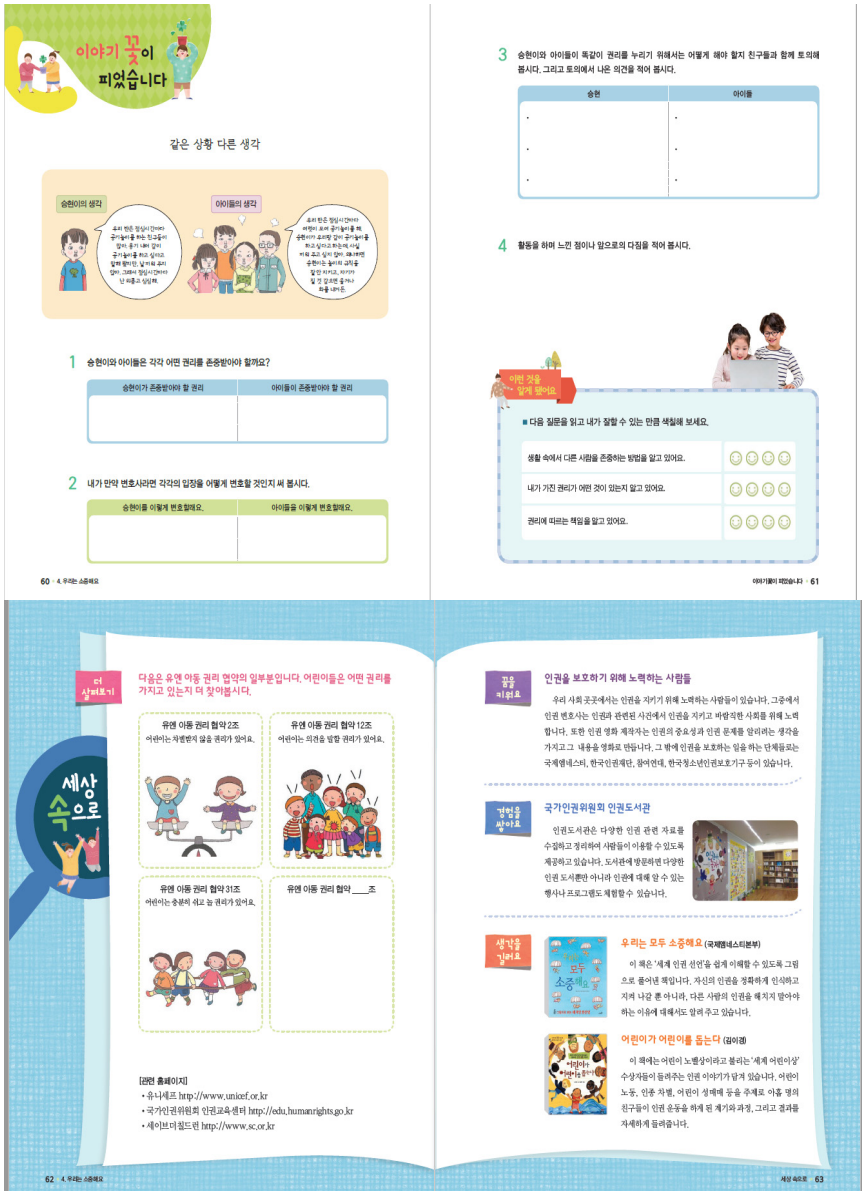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창의지성교과서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용, 초등학교 5~6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네 종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민주주의, 선거, 미디어, 인권, 다양성, 노동, 평화, 정의, 안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3~4학년, 5~6학년 교과서 단원 중 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와 5~6학년 교과서는 크게 'Ⅰ. 민주주의와 참여', 'Ⅱ. 인권과 평화', 'Ⅲ. 연대와 정의'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 2-4〉과 같다.

〈표 2-4〉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단원 구성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Ⅰ. 민주주의와 참여	1. 함께 결정해요 (민주주의)	1. 모두가 참여해요 (민주주의)
	2. 누구를 뽑을까요? (선거)	2. 내 힘으로 뽑아요 (선거)
	3. 생각을 전해요 (미디어)	3. 믿을 만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미디어)
Ⅱ. 인권과 평화	4. 우리는 소중해요 (인권)	4.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인권)
	5. 우리는 달라요 (다양성)	5.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어요 (다양성)
	6. 즐겁게 일해요 (노동)	6. 사람들은 일을 해요 (노동)
	7. 평화를 꿈꿔요 (평화)	7. 평화롭게 살아요 (평화)
Ⅲ. 연대와 정의	8. 우리 함께해요 (연대)	8. 우리 함께해요 (연대)
	9. 공정하게 살아요 (정의)	9. 정의롭게 살아요 (정의)
	10.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	10.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

위에 제시된 전체 단원 중에서 인권을 다루는 단원은 초등학교 3~4학년의 '4. 우리는 소중해요', 초등학교 5~6학년의 '4.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이며, 각 단원은 3개의 하위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2-5] 참고).



출처: 장경훈 외(2021, pp. 60-63)

[그림 2-5] 초등학교 3~4학년『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예시

먼저, 해당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 및 체계를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본격적인 활동 및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음 열기' 활동으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활동은 '무엇을 배울까요?', '생각을 열어요', '이런 것을 공부해요'로 구성되며, 각각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울지를 미리 살펴보거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단원의 내용은 3~4학년의 경우에는 '소중한 나와 너', '우리가 가진 권리', '아름다운 우리', 그리고 5~6학년의 경우에는 '나와 너의 사생활', '함께 나누는 권리', '행복한 어린이' 등 각각 3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는 주로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삽화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뿐 아니라 신문 기사, 법조문, 통계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보며 이야기나 생각을 나누는 활동들이 많았다. 단원의 마무리 활동으로는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세상 속으로' 활동은 '더 살펴보기', '꿈을 키워요', '경험을 쌓아요', '생각을 길러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사례를 넘어 사회적 시사성이 높은 학습 자료가 제시되거나 관련 직업이나 시설 및 기관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범위를 교실과 학교를 넘어 사회로 확장시키고자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독립된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사회과, 도덕과 인접 교과에서 하위 주제로만 다루던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노동'과 같이 그동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도 포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교과서가 주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이 인지적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과 삶 속에 녹아들게 할 수 있었으며, 정해진 하나의 답이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엄수정 외(2021)의 연구에서는 해당 교과서가 정의지향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부 개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시민권과

인권을 다룸에 있어서 이 개념이 갖는 가변성과 확장성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권과 인권이 어떻게 확장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나침반: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1)]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만들어진 유럽의 협력기구로, 유럽 대륙의 선도적인 인권 기구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포함한 46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인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서명하였다. 유럽평의회에서는 2002년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를 처음으로 출판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다. 나침반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평의회가 제작한 이 매뉴얼은 인권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 업데이트된 버전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이 매뉴얼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인권교육과 나침반(Human Rights Education and Compass)'은 인권교육의 도입을 위한 장으로, 인권과 인권교육, 그리고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인권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2장 '인권교육을 위한 실제 활동과 방법(Practical Activities and Methods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서는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3장 '인권을 위한 행동 취하기(Taking Action for Human Rights)'에서는 인권교육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사회나 세계 등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4장 '인권 이해하기(Understanding Human Rights)'에서는 인권과 인권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배경 정보를 국제적인 문서와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5장 '세계적인 인권 주제에 관한 배경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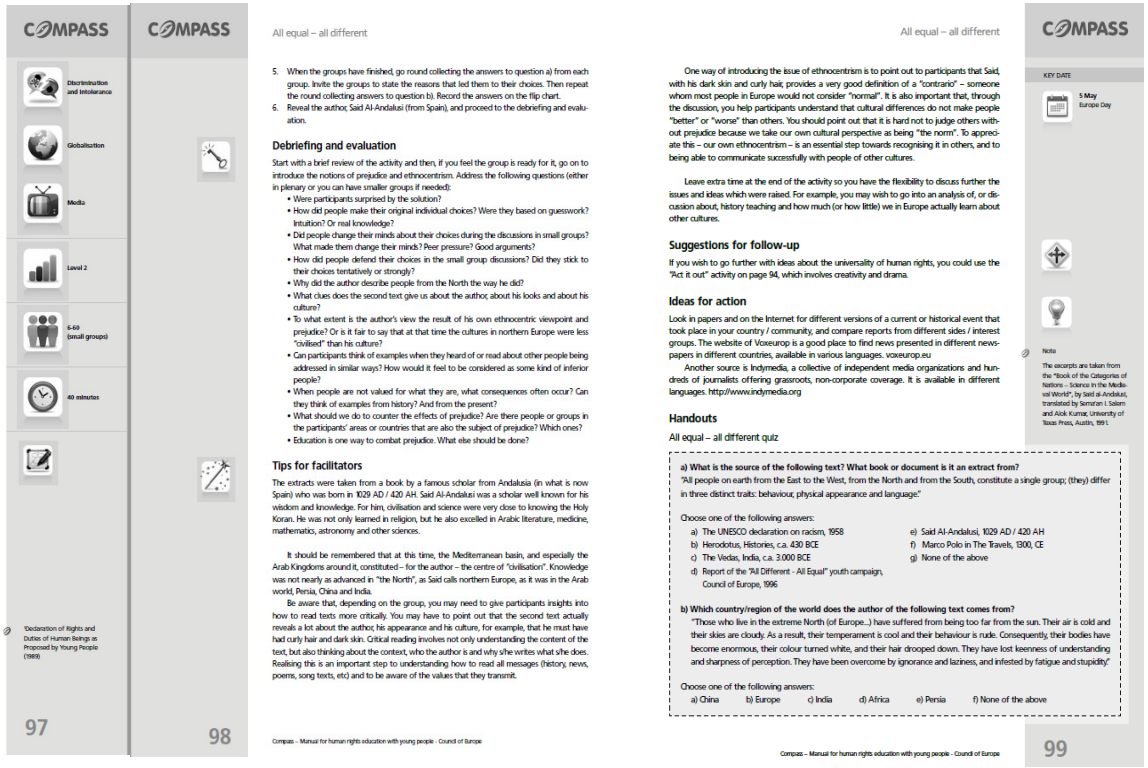
1)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https://www.coe.int/en/web/compass)

(Background Information on Global Human Rights Themes)'에서는 인권교육 관련 20개의 주요한 주제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아동(Children), 시민권과 참여(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문화와 스포츠(Culture and Sport), 민주주의(Democracy), 장애와 장애차별주의(Disability and Disablism), 차별과 무관용(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성(Gender), 인권(General Human Rights), 세계화(Globalisation), 건강(Health), 미디어(Media), 이주(Migration), 평화와 폭력(Peace and Violence), 가난(Poverty), 종교와 신념(Religion and Belief), 추모(Remembrance), 전쟁과 테러(War and Terrorism), 노동(Work)

총 다섯 개의 챕터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관련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구성방식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총 60개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각 활동에는 목표뿐 아니라, 복잡함의 정도, 활동을 위한 그룹 사이즈, 예상 소요 시간, 필요한 재료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 2-6]은 2장에 제시된 활동 중 '모두 동등한 – 모두 다른(All equal - all different)'이라는 활동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아래 제시된 [그림 2-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instruction), 보고와 평가(debriefing and evaluation), 진행자를 위한 팁(tips of facilitators), 변형(variations),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suggestions for follow-up),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ideas for action), 활동지(Handouts) 등이다. 해당 자료를 교수자가 사용할 경우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발문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해당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 활동지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All equal – all different

All human beings are universally equal and specifically different. Universal equality and specific differences must be respected.[1]

Complexity Level 2

Time 40 minutes

Group size 6 – 60 (small groups 3-4)

Themes
-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 Globalisation
- Media

Overview This is a short quiz, provocative enough to be interesting in itself but also the basis for an effective group discussion.

Related rights
- Equality in dignity
- The right to rights and freedoms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 The right to a nationality

Objectives
- To expand understanding abou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 To develop skills to read information critically and independently
- To foster awareness of ethnocentrism and prejudice in themselves and others, and to develop intercultural learning skills

Materials
- Handout
- Pens or pencils, one per person
- A large sheet of paper (A3) or flipchart and marker pen

Preparation Copy the handout, one per participant. Alternatively, write it on a blackboard or use a projector

Instructions

1. Tell the participants that the following activity is a sort of quiz, but that the purpose is not to see who has got it right and who has got it wrong; it is just a starting point.
2. Hand out or display the two quotations. Allow five minutes for the participants to read them.
3. Then ask them individually to decide:
   a) The source of the first text; which book or document is it an extract from?
   b) Which country/region of the world the author of the second text comes from?
4. When everyone is ready, ask participants to get into small groups of about three people. Give them 20 minutes to discuss and analyse their individual choices. They should think about the following questions and if possible come up with a collective answer:
   - Why did they choose one answer in preference to others?
   - What do the texts say about the authors?
   - Why did the authors write these texts?
   - What comments do they have about the texts?

COMPASS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Globalisation

Media

Level 2

6-60 (small groups)

40 minutes

'Declaration of Rights and Duties of Human Beings as Proposed by Young People' (1989)

COMPASS

5. When the groups have finished, go round collecting the answers to question a) from each group. Invite the groups to state the reasons that led them to their choices. Then repeat the round collecting answers to question b). Record the answers on the flip chart.
6. Reveal the author, Said Al-Andalusi (from Spain), and proceed to the debriefing and evaluation.

Debriefing and evaluation

Start with a brief review of the activity and then, if you feel the group is ready for it, go on to introduce the notions of prejudice and ethnocentrism.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either in plenary or you can have smaller groups if needed):
- Were participants surprised by the solution?
- How did people make their original individual choices? Were they based on guesswork? Intuition? Or real knowledge?
- Did people change their minds about their choices during the discussions in small groups? What made them change their minds? Peer pressure? Good arguments?
- How did people defend their choices in the small group discussions? Did they stick to their choices tentatively or strongly?
- Why did the author describe people from the North the way he did?
- What clues does the second text give us about the author, about his looks and about his culture?
- To what extent is the author's view the result of his own ethnocentric viewpoint and prejudice? Or is it fair to say that at that time the cultures in northern Europe were less "civilised" than his culture?
- Can participants think of examples when they heard of or read about other people being addressed in similar ways? How would it feel to be considered as some kind of inferior people?
- When people are not valued for what they are, what consequences often occur? Can they think of examples from history? And from the present?
- What should we do to counter the effects of prejudice? Are there people or groups in the participants' areas or countries that are also the subject of prejudice? Which ones?
- Education is one way to combat prejudice. What else should be done?

Tips for facilitators

The extracts were taken from a book by a famous scholar from Andalusia (in what is now Spain) who was born in 1029 AD / 420 AH. Said Al-Andalusi was a scholar well known for his wisdom and knowledge. For him, civilisation and science were very close to knowing the Holy Koran. He was not only learned in religion, but he also excelled in Arabic literature, medicine, mathematics, astronomy and other scienc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t this time, the Mediterranean basin, and especially the Arab Kingdoms around it, constituted – for the author – the centre of "civilisation". Knowledge was not nearly as advanced in "the North", as Said calls northern Europe, as it was in the Arab world, Persia, China and India.

Be aware that, depending on the group, you may need to give participants insights into how to read texts more critically. You may have to point out that the second text actually reveals a lot about the author, his appearance and his culture, for example, that he must have had curly hair and dark skin. Critical reading involves not only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text, but also thinking about the context, who the author is and why she writes what she does. Realising this is an important step to understanding how to read all messages (history, news, poems, song texts, etc) and to be aware of the values that they transmit.

One way of introducing the issue of ethnocentrism is to point out to participants that Said, with his dark skin and curly hair, provides a very good definition of a "contrario" – someone whom most people in Europe would not consider "normal". It is also important that, through the discussion, you help participants understand that cultural differences do not make people "better" or "worse" than others. You should point out that it is hard not to judge others without prejudice because we take our own cultural perspective as being "the norm". To appreciate this – our own ethnocentrism – is an essential step towards recognising it in others, and to being able to communicate successfully with people of other cultures.

Leave extra time at the end of the activity so you have the flexibility to discuss further the issues and ideas which were raised. For example, you may wish to go into an analysis of, or discussion about, history teaching and how much (or how little) we in Europe actually learn about other cultures.

Suggestions for follow-up

If you wish to go further with ideas abou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you could use the "Act it out" activity on page 94, which involves creativity and drama.

Ideas for action

Look in papers and on the Internet for different versions of a current or historical event that took place in your country / community, and compare reports from different sides / interest groups. The website of Voxeurop is a good place to find news presented in different newspapers in different countries, available in various languages. voxeurop.eu

Another source is Indymedia, a collective of independent media organizations and hundreds of journalists offering grassroots, non-corporate coverage. It is available in different languages. http://www.indymedia.org

Handouts

All equal – all different quiz

a) What is the source of the following text? What book or document is it an extract from?

"All people on earth from the East to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constitute a single group; (they) differ in three distinct traits: behaviour, physical appearance and languag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nswers:

a) The UNESCO declaration on racism, 1958
b) Herodotus, Histories, c.a. 430 BCE
c) The Vedas, India, c.a. 3.000 BCE
d) Report of the "All Different - All Equal" youth campaign, Council of Europe, 1996
e) Said Al-Andalusi, 1029 AD / 420 AH
f) Marco Polo in The Travels, 1300, CE
g) None of the above

b) Which country/region of the world does the author of the following text comes from?

"Those who live in the extreme North (of Europe...) have suffered from being too far from the sun. Their air is cold and their skies are cloudy. As a result, their temperament is cool and their behaviour is rude. Consequently, their bodies have become enormous, their colour turned white, and their hair drooped down. They have lost keenness of understanding and sharpness of perception. They have been overcome by ignorance and laziness, and infested by fatigue and stupidity."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nswers:

a) China b) Europe c) India d) Africa e) Persia f) None of the above

COMPASS

KEY DATE

5 May Europe Day

Note

The excerpts are taken from the "Book of the Categories of Nations – Science in the Medieval World", by Said al-Andalusi, translated by Semzen I. Salem and Alok Kumar,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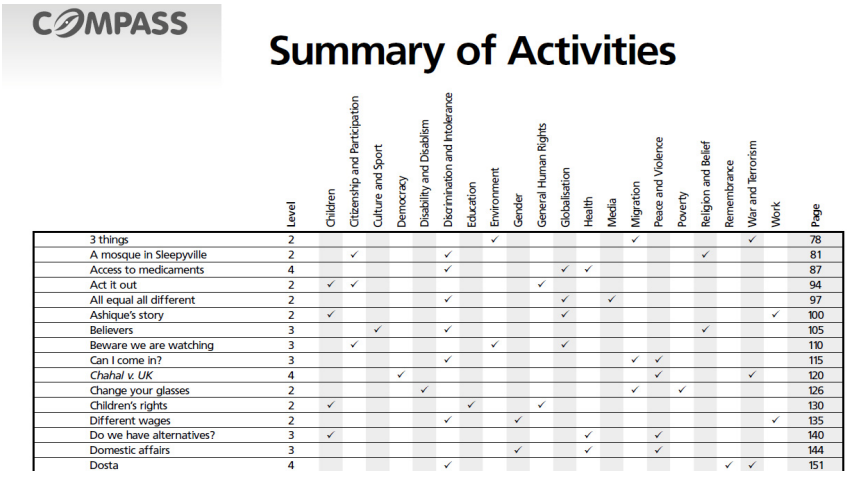
출처: Council of Europe(2020, pp. 97-99)

[그림 2-6] 유럽평의회의 『Compass』에 제시된 인권교육 활동 자료 예시

한편 3장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실이나 학교 안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를 위한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기보다는 교수·학습방법 수준에서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 제안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공적인 행동(Public actions), 청소년 교육하기(Young people educating), 스스로 하기(Doing it yourself), 주 대표의 정책이나 행동 바꾸기(Changing the policy or behaviour of state representatives), 다른 그룹 또는 움직임과 연결하기(Link up with other groups or movements), 증거 수집하기(Evidence gathering)

유럽평의회에서 제작한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인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에서는 인권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수자들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매우 구체적이었다. 약 60여 개의 활동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하나의 개요표로 제시함(아래의 [그림 2-7] 참고)으로써 교사들은 정해진 순서가 아닌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 및 자료들을 PDF 문서와 함께 유럽평의회 웹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COMPASS

Summary of Activities

	Level	Children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Culture and Sport	Democracy	Disability and Disablism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Education	Environment	Gender	General Human Rights	Globalisation	Health	Media	Migration	Peace and Violence	Poverty	Religion and Belief	Remembrance	War and Terrorism	Work	Page
3 things	2								✓						✓					✓		78
A mosque in Sleepyville	2		✓				✓											✓				81
Access to medicaments	4						✓					✓	✓									87
Act it out	2	✓	✓								✓											94
All equal all different	2						✓					✓		✓								97
Ashique's story	2	✓										✓									✓	100
Believers	3			✓			✓											✓				105
Beware we are watching	3		✓						✓			✓										110
Can I come in?	3						✓								✓	✓						115
Chahal v. UK	4				✓											✓				✓		120
Change your glasses	2					✓									✓		✓					126
Children's rights	2	✓						✓			✓											130
Different wages	2						✓			✓											✓	135
Do we have alternatives?	3	✓											✓			✓						140
Domestic affairs	3									✓			✓			✓						144
Dosta	4						✓												✓	✓		151

출처: Council of Europe(2020, p. 72)

[그림 2-7] 유럽평의회의 『Compass』에 제시된 인권교육 활동 요약표 일부

다음으로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의 내용이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했던 인권교육 관련 20개 주제를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일반적인 권리나 아동, 시민권, 교육에서부터 차별, 이주, 성 등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 내용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국가 내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세계 맥락의 주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장에서는 각 활동의 마지막 부분에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ideas for actions)'를 제시하며, 3장 '인권을 위한 행동 취하기(Taking Action for Human Rights)'를 별도의 챕터로 제시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천 역량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60개의 활동에서는 차별, 시민권, 일반적인 권리 등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가난이나 장애, 이민, 노동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세계화'를 인권 관련 주요 주제로 설정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세계적 맥락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나, 국가 간의 권력 관계까지 깊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활동에서는 활동의 '복잡성(complexity)'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때 단계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교수자가 해당 활동을 진행하기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이나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와 소개 위주로 제시되어 시청각 자료가 덜 풍부하였다.

라.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수·학습자료[2)]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지역정치교육을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라는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여 196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시민교육의 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주요 관심사가 바뀌어 왔음에도 독일 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은 사회변혁, 경제문제, 환경과 평화 및 안보,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 등에 관심을 두다가 2000년대에

2) https://www.bpb.de/ler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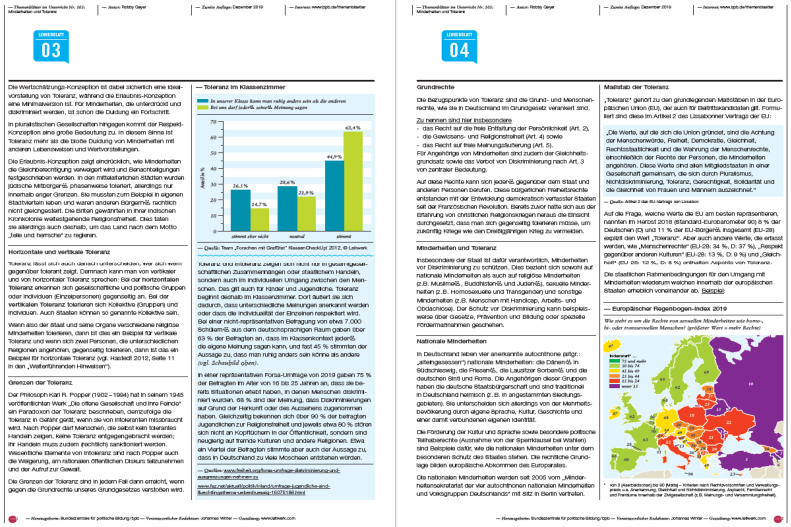
들어서면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정연미, 윤순진, 2014). 따라서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홈페이지에는 현황과 역사, 활동 보고서, 출판물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활동과 자료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홈페이지 'Lernen'에는 '교육 주제(Bildungsthemen)', '자료 검색(Materialsuche)'등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유용한 교수·학습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 '교육 주제' 페이지에는 정치교육, 디지털교육, 역사 정치교육, 포용적 정치교육 등의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들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교육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고, 교사가 쉽게 검색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서 '수업 중 주제 시트'에서는 정치 및 사회 주제 관련하여 교사를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안내가 포함된 워크시트를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주제를 클릭하면,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이를 위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그림 2-8]은 '사회정의'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수·학습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교수·학습자료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개념적 설명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의 형태에 가까우며, 교사가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정치교육 관련 자료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정의', '한계에 직면한 세계화', '기후 보호와 사회 변화', '소수자와 관용', '증오심 표현 – 인터넷상의 집단 관련 혐오 표현', '일상적인 인종차별' 등 인권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자료는 소개, 교사용 시트, 워크시트(활동지), 참고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자료는 교사용 시트와 워크시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교사용 시트에서는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학습 목표가 제시되고, 이후에는 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을 하는 교사가 참고해야 하는 사항과 학생들에게 워크시트 즉, 활동지가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와 관용', '일상적인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출처: Geyer(2019, pp. 5-6, pp. 9-10)

[그림 2-8]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수자와 관용'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독일의 전후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서 1976년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원칙[3]을 토대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데, 살펴본 교수·학습자료도 같은

3) 1976년 서독의 보수 및 진보 정치교육학자들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으로, 본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란 정치교육 방법의 원칙으로서 '강압 금지', '논쟁성에 대한 요청', '이해관계 인지' 등 세 가지 원칙을 말한다(심성보 외, 2018). '강압 금지'란 교육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견해를 학습자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논쟁성에 대한 요청'은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즉 하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인지'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당면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교수·학습자료에서는 인권 관련 개념을 다루되, 학생들이 비판적이며 자기성찰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었다. 예컨대, '일상적인 인종차별'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과학적, 심리학적, UN, 헌법, 독일인권연구소 등의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인종차별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 실천 역량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연결되고 있었다. 살펴본 두 개의 자료에서는 모두 개념에 대한 제시뿐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인종차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인종차별을 가시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인종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컨대, "공항에서 모든 승객이 보안 검사를 받았다", "추천에도 불구하고 터키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인턴 인터뷰에 초대조차 되지 않았다" 등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이 인종 차별적인지 판단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 차별적인 용어와 차별적이지 않은 용어를 논의해보는 활동도 있었다.

두 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수·학습자료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비판이론에 주로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수자와 관용'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므로 관용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의 한계 및 남용을 제시하거나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관용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적용되었다.

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인종차별’에서도 인종을 다양성의 하나로 여겨 다양성 인정에 대한 존중과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식민주의나 나치 등을 언급하며 사회구조적인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논의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는 포스트휴머니즘 관련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인권에 대한 논의가 여전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자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사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제3장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제1절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인권교육 개념 및 원리

제2절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제3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 분석

제4절 인권교과목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제5절 소결

제3장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제1절 |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리

본 절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교육의 개념

UN은 「세계인권선언」 발표 이후 여러 지침과 협정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각 국가나 지역의 맥락에 따라 인권교육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실천되지만 UN이 제시한 인권교육의 개념은 국제적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UN인권교육훈련선언」이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정의가 국내외 정책과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인권교육훈련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가. UN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인권교육 개념

「UN인권교육훈련선언」은 공교육뿐 아니라 대안교육, 비정규 교육 등 여러 교육 분야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UN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명확히 밝힌다. 「UN인권교육훈련선언」 제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인권교육이란 그 자체로 권능화 권리(enabling rights), 즉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Jerome et al., 2015).

「UN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며 “인권친화적 행동”을 발달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UN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 제1항).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UN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 제2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UN은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about) 교육,’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 그리고 ‘인권을 위한(for) 교육’을 모두 포괄해야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 제2조
>
> 2.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가.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
> 나.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한 사항
>
> 다.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량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UN인권교육훈련선언」을 차용하여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인권교육이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UN인권교육훈련선언」의 정의를 따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정의는 교육 목적, 내용,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Jerome, 2018). 둘째,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만큼 포괄적이다. 교육적 실천은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여러 존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행위이다. 이에 따

라 인권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하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

나. 유관개념과의 관계: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개념이 인권교육과 연관되어 이해되고 실천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는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간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인권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Bajaj, 2012; Jerome, et al., 2015; Osler & Starkey, 2018; Potvin & Beanny, 2013; Starkey, 2015; Tibbits, 2002, 2008, 2018). 인권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며, 민주시민교육이 인권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의 인권 친환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시민 개념을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려는 시도도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은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규정된다. 시민권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배제성을 포함하지만, 인권은 그렇지 않다.

Hung(2012)은 인권과 시민권이 서로 다른 철학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발전된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시민교육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Jerome(2012)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으로서 갖는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시민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인권이 책임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즉,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인권이 보장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Starkey(2015)와 Osler & Starkey(2018)도 국가를 토대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인권교육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집중할 경우 국가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인권 개념은 시민교육이 갖는 배제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평등과 존엄성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면, 국

가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Osler & Starkey, 2018; Starkey, 2015).

Tibbitts(2018)는 인권교육 측면에서 국가와 인권 간의 긴장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인권의 역설을 지적한 Hannah Arendt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유대인 대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Arendt는 무국적 상태에서의 인권 박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인권도 결국은 사회나 국가를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Arendt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은 인권 개념이 사회정치적 맥락 밖의 개인을 상정하지만 실제로 인권은 시민권을 매개로 할 때만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지적한다(Zembylas & Bozalek, 2014). 이러한 긴장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인권 개념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권 논의의 추상성을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인권 논의의 추상성은 시민권과 연계할 때 구체화할 수 있다. Tibbitts(2018)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기도 하지만,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 및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인성교육도 인권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인성의 의미는 개인의 기질, 인격성, 도덕성, 성품 등 다양하게 정의되며, 인성교육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Williams & Schaps, 1999). 관점에 따라 인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접근해야하는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성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윤리적 가치 및 수행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개념화된다(Bleland, 2003). 한국에서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2조에서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인성교육의 일차적 초점은 개인의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는 것에 있으나, 개인 차원의 덕목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인성 함양을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성교육은 사회 내

에서 합의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기존의 사회문화 내에서 합의된 가치를 지향하는 관습적이고 상식적인 말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효(孝)'의 가치를 내면화할 것을 가르치지만, 인권교육은 '효(孝)'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말이나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연령이나 지위를 토대로 한 차별주의를 (재)생산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을 가르친다.

김은희(2023)는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때, "인권에 있어 권리-의무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인권의 문제를 개인 간의 존중과 배려하는 선의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p. 20). 개인의 품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인권교육과 동일시 여길 때, 사회의 소수자는 사회구성원의 선의에 의해 인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도 다르다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의 이행 또한 인성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모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Bleland, 2003; Lichona, 2018; Williams, 2000), 인권교육에서는 교사는 비판적 대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엄수정 외, 2021; Osler & Starkey, 2018). 이처럼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간의 중첩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만 각기 초점이 다르다. 인권교육은 당위적인 인권 개념을 토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민주시민교육은 제도 안에서 규정된 시민권 개념을 토대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인성교육의 초점은 개인의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기도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는 인권 논의의 개방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인권교육의 추상적인 인권 논의가 갖는 한계는 시민권의 구체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덕목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회화를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함을 제안한다.

2.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원리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원리는 총체성, 맥락성, 비판성이다. 다음의 〈표 3-1〉은 각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각 원리에 따른 핵심 질문은 무엇인지 정리한 것이다.

〈표 3-1〉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원리

원리	설명	핵심 질문
총체성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모두 포괄해야 함. 인권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인권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 선정	• 인권에 관한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가?
		• 인권에 관한 이해를 넘어 실천 역량을 지향하는가?
맥락성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당면한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는 내용을 선정(발달적 맥락,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	•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는가?
		• 학생들이 위치한 학교, 마을, 사회, 국가, 세계, 지구의 맥락에 적합한가?
비판성	사적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넘어설 것. 개인주의, 계몽주의, 휴머니즘 인권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인권 관련 이슈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 참고)	•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가?
		•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키는가?

첫 번째 원리는 총체성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인권을 통한 교수·학습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인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어떠한지 아는 것을 넘어 일상의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각하며 인권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체성 원리와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권에 관한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가? 인권에 관한 이해를 넘어 실천 역량을 지향하는가? 이는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감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 체계에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질문들이다.

두 번째 원리는 맥락성이다. 인권과 관련한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인권교육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McGaughey et al.(2019)은 이제까지의 인권교육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국제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권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서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 상황 및 사례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 원리, 일반화와 연결할 수 있다. 맥락성 원리와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는가? 학생들이 위치한 학교, 마을, 사회, 국가, 세계, 지구의 맥락에 적합한가? 이러한 핵심 질문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비판성이다. 본 연구는 사적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는 식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경계한다. 또한, 개인주의, 계몽주의, 휴머니즘 인권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개별 인간 주체의 권리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집단 간, 국가 간, 종(種)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야기한 권리문제에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개념 및 관련 이슈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비판성 원리와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가?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키는가? 이는 지금의 사회 체계 및 문화 안에서 구성원의 차이가 어떻게 소외와 배제, 차별로 연결되는지 구조적인 차원의 인권 교육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서구 중심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아가 인간종(種) 우월주의와 예외주의가 야기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간의 갈등까지 다루기 위한 내용 요소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제2절 |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UN 인권 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ossioner for Human Rights)(2004/2006)은 교실에서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아동의 발달 단계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아 및 타인 존중, 인권 친화적 학급 문화 등을 강조한다면, 개념 발달 및 분석적 추론 능력이 보다 발달된 고학년에게는 인권의 역사, 법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체계는 다음 〈표 3-2〉과 같다.

〈표 3-2〉 UN(2004/2006)의 단계별 인권교육 내용체계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아동기 초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만 3세~7세)	• 자아존중 • 부모와 교사 존중 • 타인 존중	• 자아 • 공동체 • 개인책임	• 의무 • 공정성 • 자아표현 • 협력/분담 • 소집단 활동 • 개별 활동 • 원인/결과의 이해 • 민주주의 • 타인의 입장 이해 • 갈등 해결	• 인종차별 • 성차별 • 불공정성 • (감정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 학급규칙 • 가정생활 • 공동체 규범 • 세계인권선언 • 아동권리협약
아동기 후반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 8세~11세)	• 사회적 책임 • 시민의식 •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기	• 개인의 권리 • 집단 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치주의 • 정부 • 안보	• 다양성의 가치 인정 • 공정성 • 사실과 의견 구분 • 학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 시민으로서의 책임	• 차별/편견 • 빈곤/기아 • 불법(부당함) • 민족중심주의 • 자기중심주의 • 수동성	• 인권의 역사 • 지방, 국가의 법체계 • 지방, 국가의 인권 관련 역사 • UNESCO, UNICEF • 비정부기구 (NGO)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사춘기 중학생 (만 12세~14세)	•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 국제법 • 세계평화 • 국제발전 • 국제 정치경제론 • 국제 생태학	•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인용하기 • 연구 수행/정보 수집 • 정보 공유하기	• 무지 • 무관심 • 냉소주의 • 정치적 억압 • 식민지주의/제국주의 • 경제적 세계화 • 환경 악화	• UN규약 • 인종차별 철폐 • 성차별 철폐 • UN 난민고등판무관 • 지역별 인권 협약
청소년기 고등학생 (만 15세~17세)	• 보편적 기준으로서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을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통합하기	• 도덕적 편입/배제 • 도덕적 책임/이해능력	• 시민단체 참여 • 시민적 책임 완수 • 시민불복종 운동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범죄 등	• 제네바 협약들 • 전문 협약들 • 인권기준의 변천

출처: UN(2004/2006), p.27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로 수행된 구정화 외(2020)의 연구로, 이는 이전에 수행된 문용린 외(2003)의 연구에 토대를 둔 것이다. 문용린 외(2003)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체계를 크게 '태도·가치관',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인권 신장을 위한 현실 참여'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구정화 외(2020)는 문용린 외(2003)에 제시한 내용체계의 틀을 유지하되 범주를 신설 및 축약하였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기존 '기본 개념' 범주에 '연대권적 측면으로서 인권'이라는 하위 범주를 추가하고,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인권 신장을 위한 현실 참여'를 통합하여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범주로 축약하였다. 그리하여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인권의 유형과 내용',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로 범주화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 내용 범주를 지식, 가치·태도, 기능·행동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인권교육을 통해 인지, 태도, 기능 측면의 총체적 발달을 지향해야 함을 드러낸다.

각각의 범주에 포함된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인권의 의미와 역사'는 인권의 의미, 인권의 발달 및 확산, 현대사회의 인권,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다. 두 번째 범주인 '인권의 유형과 내용'은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연대권적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 범주인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는 국내외 인권 관련 법, 제도, 관련 기구,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인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은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현대 사회에 새롭게 마주하게 된 인권 문제 등을 다룬다. 구정화 외(2020)의 내용체계에서 대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요소는 다음 〈표 3-3〉와 같다.

〈표 3-3〉 구정화 외(2020)의 단계별 인권교육 내용체계

지식		가치·태도	기능·행동
대범주	영역		
Ⅰ. 인권의 의미와 역사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2. 인권의 발달 및 확산 과정 3. 인권과 다양한 가치	•인권 가치(자유, 평등, 연대, 다양성 존중 등) 지향 및 추구 •반인권 인식이나 태도(편견, 고정관념, 차별, 불평등, 혐오 등) 지양 •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지향 태도 •자신의 인권 존중 및 옹호 태도 •타인의 인권 존중 및 옹호 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공감 및 옹호 태도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적 태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의지와 태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와 태도 •민주적 사회참여를 위한 가치와 태도	•조사하기 •분석하기 •비판하기 •의사소통하기 •의사결정하기 •참여하기 •연대하기
Ⅱ. 인권의 유형과 내용	1. 시민·정치적 권리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 연대적 권리		
Ⅲ.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1. 인권 관련 문서와 법 2. 인권 관련 기구와 제도 3.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Ⅳ.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1. 일상생활 속 다양한 인권 문제 2. 사회적 약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3.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권 문제		

셋째, 엄수정 외(2021)는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을 포함한 국내외 인권 단체의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엄수정 외(2021)는 구정화 외(2020)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범주와 하위 내용을 신설하고 통합하여 재구조화하였다. 구정화 외(2020)의 내용체계에 포함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에 더하여 인권의 확장과 변화를 보다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Ⅱ.인권의 유형과 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구정화 외(2020)의 범주 'Ⅲ.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Ⅳ.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의 하위 내용을 재구성하여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적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엄수정 외(2021)의 내용체계는 '인권의 의미와 역사', '인권의 유형과 내용', '인권 문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행동'의 총 4개 대범주로 구성된다. 각각의 범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의 의미와 역사'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 역사적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인권의 유형과 내용'은 인권의 유형, 현대 사회의 새롭게 등장한 인권 유형 등과 관련된다. '인권 문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인권 문제의 역사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인권 침해 문제의 원인과 결과,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노력과 사회 운동 사례 등에 대해 다룬다.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행동'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사회 행동에 참여해본 경험을 성찰하는 것 등과 관련된다. 엄수정 외(2021)의 인권교육 내용체계의 대범주 및 영역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엄수정 외(2021)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대범주	영역
1. 인권의 의미와 역사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의 역사적 발달
2. 인권의 유형과 내용	•인권의 유형 •인권의 확장과 변화
3. 인권 문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4.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행동	•인권의식의 확산 •사회 행동 참여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내용체계를 구성할 때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인권의 확장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가 수행된 당시 사회에 제기되는 새로운 인권 개념, 제도, 기구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 연구인 엄수정 외(2021)의 경우 UN(2004/2006)에서 다루지 않았던 환경권, 정보권, 문화권 등을 포함하고, 인권의 문제를 비인간 자연의 권리로 확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인권 개념에 대한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이고 기능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함양하고자 한다. 예컨대 구정화 외(2020)가 제시한 내용체계표(〈표 3-3〉 참고)는 인권교육 범주를 지식, 기능, 태도·가치로 구체화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시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을 통해 습득한 앎이 실제적인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에 실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것으로서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하여 엄수정 외(2021)는 인권교육 내용체계에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행동' 범주를 제시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절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 관점 및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 총론에서는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인권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되어왔다. 그 이후 몇 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범교과 학습주제 목록에 주제가 추가 혹은 삭제되었는데, 인권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계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인권교육이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교육 관련하여 2022 개정 총론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후·생태환경 변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등 우리가 새롭게 마주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협력, 공동체 의식, 포용적·개방적 가치와 태도, 지속가능성, 생태 감수성 등 인권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과 존엄성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고, 학급·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권 관련 가치, 인권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한편 2022 개정 총론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 소외, 배제 없이 모두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한다. 예컨대 교수·학습 및 평가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한다(교육부, 2022, p. 11). 이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강조하며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어서 지역, 학교, 교실의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 자율시간’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에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증감 범위를 활용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어서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고 자율·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교육부, 2022a, p. 4)하도록 명시하는데, 이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및 교실 수준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고 인권친화적 태도를 길러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과는 통합교과(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사회과, 도덕과, 과학과, 실과였다(〈표 3-5〉참고). 이하에서는 각각의 교과에 반영된 인권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 2022 개정 각론의 인권교육 내용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통합교과	바른 생활	・자기 존중 ・배려 ・더불어 사는 삶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마음 ・개방성	-	-
	슬기로운 생활	-	-	-
	즐거운 생활	・안전과 안녕 ・어울림	-	-
국어		-	・매체 소통 윤리	・매체 자료의 신뢰성 평가하기 ・매체 소통에 대한 성찰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사회	-	• 장소에 대한 경험 공감 및 장소에 대한 감수성 •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 •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호기심 • 이용과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 •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 •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식 • 민주주의의 의미 • 인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 권리와 책임의 조화 • 인권 친화적 태도 • 상호의존 관계 • 다양한 문화의 사례 조사하기 • 문화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	• 장소에 대한 경험 공감 및 장소에 대한 감수성 •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 •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호기심 • 기후변화 •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 •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 •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식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 지구촌의 평화 • 인권의 의미 • 헌법상 인권의 내용 •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 인권 보호 활동 참여 • 인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 권리와 책임의 조화 • 인권 친화적 태도 • 문화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 • 민주화와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문화
도덕	-	• 나는 왜 소중한 사람인가? •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 바라보기 • 자기를 소중히 하는 태도	• 자주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 반성하는 태도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친구끼리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에 대한 공감은 왜 필요할까? ・친구를 배려하는 자세 ・타인에 공감하는 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불공정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정사회를 위해 내가 할 일 탐색하기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 탐색하기 ・공정을 실천하려는 태도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 ・생명은 왜 소중할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 경시 사례 조사하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 ・생명에 대한 존중 ・생태 감수성 함양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타인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양한 도움 방안 탐색하기 ・편견 사례를 찾고 수정 방안 제안하기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 맺을 때 필요한 윤리적 원칙 점검하기 ・타인을 위하는 자세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인공지능 로봇과의 바른 관계 형성 의지 함양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 관련 문제 사례 조사하기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규칙 고안하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 생각하기 ・인권 감수성 함양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 의지 함양 ・인류를 사랑하는 태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삶이란 무엇일까?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살펴보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계획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세우기 ·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과학	-	·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 생명과학과 우리 생활 ·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생명 현상 관련 문제 인식하기 · 기후변화 사례 · 기후위기 대응 ·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 관련된 문제 인식하기	·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생명 현상 관련 문제 인식하기 · 날씨와 기상 요소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실과	-	-	· 아동기 발달과 자기 이해 · 아동기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 가족 간 배려와 돌봄의 가치 · 지속가능한 의식주생활 ·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기 · 일상생활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기 · 생활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인식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 태도 · 동식물에 대한 생태존중감을 갖는 태도 · 지속가능한 농업의 순환성과 중요성 인식 ·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자세

첫째, 통합교과(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는 바른 생활 교과에 인권 교육 관련 내용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바른 생활에서는 자기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가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예컨대 '[2바-02-03] 차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생활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체마다 언어, 의상, 음식 등 문화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현재와 우리 삶에 미치는 범지구적 문제들을 다룰 것을 제안하며, 이때 이러한 주제들을 민주시민교육, 생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한편 슬기로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는 인권 교육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즐거운 생활에는 안전과 안녕, 어울림 등 소수 인권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슬기로운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의 내용체계 상에는 인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인권 관련 내용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인 '[2즐03-04] 안전과 안녕을 위한 아동의 권리가 알고 있음을 누린다'와 같이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서 인권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슬기로운 생활의 경우 성취기준 '[2슬01-04] 사람과 자연, 동식물과 어우려져 생태를 탐구하다'를 적용할 경우 다문화 교육이나 인권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체' 영역의 경우 일부 내용이 인권 교육과 연계되어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인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를 수업에서 적용 시 다양한 매체 자료 활용 및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등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셋째, 사회과는 인권교육 인접 교과로 인권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며 민주시민 및 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공동체 의식, 평화, 문화 다양성, 생태 감수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에서 주목할 점은 5~6학년군에 '법과 인권의 보장' 영역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은 예를 들면 '[6사03-1] 일상 사례에서 법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법에 의한 인권 보장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인권 의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집중되어 나타난 반면에 인권의 유형, 특히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화 외(2004)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초등학교에서 초보적인 수준으로 다룰 것을 제시하는데,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넷째, 도덕과는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인접 교과로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인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가 나와 상관없는 타자의 문제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과 밀접한 연계가 되어있음을 이해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일상화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때 도덕과 교육과정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자연과 공생해야 하는 이유,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등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의 유형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예컨대 성취기준 '[4도03-02]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른다.', '[9도02-03]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태도를 함양한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도덕과 특성상 가치 위주의 진술이 주를 이루었다. 인권 관련 법, 개념, 유형 등을 인권 관련 개념보다는 도덕적 맥락에서 인간 존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실과와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기후위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교육과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과의 '지속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의 성취기준 '[6실04-08] 생활 속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알고, 동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생태 존중감을 가진다'의 경우 성취기준 적용 시 생명존중의 의미, 동물권 등 확장된 인권 개념에 대해 다루는 등 인권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교사의 관점, 교육철학, 경험 등에 따라 인권 문제와 직접 연결 짓지 않을 우려도 있다.

이처럼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각론을 살펴본 결과 바른 생활, 사회, 도덕 등 일부 교과에서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의 모든 교과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차별, 배제, 소외되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구축을 강조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 현장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배움과 성장을 질적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교과 수업에서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만듦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종합 분석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론에서는 공동체, 존중, 배려, 포용, 다양성 등 인권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자율시간, 교사 자율성, 민주적 참여 등 학교와 교사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이는 인권친화적 교실 및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총론에서 인권 관련 내용은 포괄적으로 언급될 뿐 '인권'이 명시적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물론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기 어렵다. 이에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

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교육이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과별로 인권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론에서는 인권교육이 바른 생활, 사회과, 도덕과에 치우쳐져 있었다. 이들 교과 교육과정 경우 학습 주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일부 인권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일지라도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학습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인권교육이 충실히 구현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각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장면에서 분절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교사의 관점에 따라 혹은 교사의 경험에 따라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목표, 내용,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 예를 들어 인권 발달 및 확산, 다양한 인권의 유형, 인권의 확장과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여러 교과들에서 문화 다양성 관련 개념과 가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 집단 권리, 정의, 평등 등 인권 관련 가치들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2 개정 각론 분석 결과 교과와 인권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론에서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총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정보기술의 발달, 생태위기 문제와 관련된 성취기준, 내용 요소들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권의 변화와 확장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기후위기, 사회불평등, 다양한 문화 등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러 교과들에서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환경 등을 학습 주제를 다룰 때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교육과정 전반이 인간, 자연을 이분법적으

로 구분하고 인간중심주의를 견지하며 내용체계, 성취기준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통사1-03-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생태 시민으로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환경문제에 내재된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격차를 간과한 것이며, 인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 개념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성물로 비판적 해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Zembylas et al., 2017)을 미루어볼 때,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까지 당연시 여겼던 인간중심주의, 인간종 우월주의를 벗어나 비인간 자연의 권리에 대해 사유하고, 기존의 인권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재사유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4절 | 인권교과목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인권교과목 내용 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델파이 조사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패널로 구성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익명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된 서면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인권교과목의 내용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용 체계의 이론적 정합성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명의 델파이 패널 중에서 15명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인권교과목 내용 체계의 적절성 및 인권교과서 개발의 중점을 확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두 번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 및 교과서 구성,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 개발의 중점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1. 1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는 2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각의 항목과 관련된 문항은 앞에서 기술한 문헌 분석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였으며, 20명의 패널에게 2023년 8월 11일에 이메일로 질문지를 송부하여 8월 20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20명이 패널 모두 기한 내에 회신하였다. 아래의 〈표 3-6〉은 델파이 패널의 주요경력을 정리한 것이다.

〈표 3-6〉 델파이 패널의 주요 경력

패널 연번	주요경력
1	초등학교 교육 경력 27년 6개월, 교육부 초등민주시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참여,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온라인 연수 퍼실리테이터 활동,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2	초등학교 교육 경력 18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학교시민전국네트워크 활동, 학생인권교육 업무 담당,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저
3	초등학교 교육 경력 21년 5개월, 학생생활인권연구회 활동
4	초등학교 교육 경력 25년, 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5	초등학교 교육 경력 5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학생자치 업무 담당
6	초등학교 교육 경력 21년 6개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보조교재 집필
7	초등학교 교육 경력 32년 5개월, 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장학관, 도교육청 교육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3편 집필
8	초등학교 교육 경력 24년, 어린이인권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자문위원, 한국방정환재단 연구포럼 토론자
9	초등학교 교육 경력 18년 4개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학생참여위원회 인권기반 자치역량 함양 캠프 강사
10	초등학교 교육 경력 26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수 R&D 사업 전문가 활동,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활동
11	초등학교 교육 경력 22년 6개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학생인권교육 업무 담당, 민주시민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12	초등학교 교육 경력 25년 3개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담당 장학사
13	초등학교 교육 경력 15년,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수정보완위원,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활동,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단 활동
14	초등학교 교육 경력 20년 6개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학생인권교육연구회 활동
15	초등학교 교육 경력 10년 6개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16	00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논문 다수 집필
17	00교육대학교 교수,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논문 다수 집필
18	00교육대학교 교수,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논문 다수 집필
19	전)00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논문 다수 집필
20	도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 학생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가.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관점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등의 6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관점이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으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 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물었다. 아래의 〈표 3-7〉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CVR 0.42 이상)을 넘었다. 자유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관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신자유주의 관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명에 불과했다.

〈표 3-7〉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1차 델파이 조사)

관점	적절하다는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CVR
자유주의 접근	12	3.80	1.11	0.20
신자유주의 접근	1	1.60	0.88	-0.90
다문화주의 접근	18	4.65	0.81	0.80
비판이론 관점	12	3.55	1.19	0.20
탈식민주의 관점	8	3.30	0.92	-0.20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16	4.15	1.04	0.60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패널에게 전술한 객관식 설문 외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으로 지향해야 할 것과 그 이유, 지양해야 할 것과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은 다문화주의나 포스트휴머니즘 외에도 비판이론이나 탈식민주의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경우 초등학생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1. 지향해야 할 관점과 이유

〈다문화주의적 관점〉
- 초등학생 수준에서 학습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은 공동체성인데, 공동체성과 관련된 인권 관점이 다문화주의 관점임.
-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양한 집단과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다문화주의 관점에 입각한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차별과 편견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배우게 함.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동등한 존재로서 평가하고 대우하는 민감성을 키울 수 있음.

- 서로 다른 문화, 종교 및 전통, 다양한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을 인정할 때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갈 수 있음. 이는 자유권 중심의 1세대 인권에서부터 4세대 인권인 생태적 인권, 안전권, 디지털 인권까지 아우르는 밑바탕이 될 것임.
- 초등학생 시기부터 나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교육 경험은 이후 보다 구조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두고 생활하는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게 함. 대표적으로 초등 과정에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같은 예시를 보면, 학교 도시락을 공동으로 준비할 때, 종교별 못 먹는 음식을 반영하여 준비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문화적으로 소수자일 때 어떤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지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음. 인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중심 가치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문화가 법적인 토대가 됨.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집단– 남성/여성, 장애/비장애 등 –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지 인지하고 행동하게 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문화주의는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대안을 세우는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음. 인권침해 문제는 실상 상호 존중의 부족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관점이 인권교육 신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 생태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권은 더 이상 인간 주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통해서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논의하는, 상호관계적 관점을 인권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인권이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재화와 유사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혹은 인간 대 비인간 간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음. 국가 대 개인의 차원으로 보면, 인권은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 속 장면으로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살피고 돌볼 때,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인권은 보장되는 것은 아닐까 함.
-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역시 아직도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시혜적인 접근의 교육으로 이루어짐. 인간과 자연, 동물 등 비인간 주체의 존엄성을 함께 존중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는 세계관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워나가야 함. 다른 사람이나 비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인간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함.

〈비판이론〉
-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여러 인권 관련 문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 인권침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 젠더, 인종 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야 함.
- 인권문제는 구조적 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이론이 근본적 문제해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다만 초등학교에서 이론적 난해성 때문에 비판이론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비판 이론 관점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인권이 당위적인 것,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권 개념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 또한 경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음. 학생들이 인권을'누군가 정해놓은 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내 삶에 어떻게 당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삶인지에 관해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지적, 행위적 실천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인권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자유주의〉
-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육아, 보육과 교육이 혼재된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대상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가 학교라는 곳에서 독립된 자아로서의 의미를 찾는 단계임. 이에 따라 각 개개인의 독립된 인격체, 자유로운 개인의 의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유로운 개인 간에 공동체를 구성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자유, 평등과 존엄 등의 핵심가치를 학습하고 나 아닌 다른 개인들도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인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가장 지향해야할 관점이라 생각함.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개개인이 갖는 인간 존엄은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음. 인권교육은 개개인이 갖는 존엄성의 확인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존엄성,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인정되어 우리 공동의 인간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음. 이런 바탕에서 다문화주의적 관점, 비판이론적 관점,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의 인권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봄.

2. 지양해야 할 관점과 이유

〈신자유주의 관점〉
- 인권을 사적인 측면의 문제로 치부하는 오개념을 학습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적 인권관점을 지향하는 데서 비롯된 부분이 있음.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것, 승자독식이 당연시되는 공정주의 등은 신자유주의 관점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임.
-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합리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중시하여 결과적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옹호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음. 나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관점의 인권교육은 지양되어야 함.

-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쟁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근거로서 자격이 부족함. 물론 신자유주의가 인권침해를 조장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시장원리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복지와 같은 구조적 개입, 정부의 보장적 개입, 윤리적 개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인권 교육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판단됨.
-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다른 쪽을 피해자로 구분한다면 어느 한쪽에게는 이기심을 다른 한쪽에는 시작점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갈등만 심화시킬 것임.
-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권리 기반 접근은 인권을 중심으로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가기보다 오히려 배타적이고 개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인권이 강조되어 사회 갈등을 초래하기 쉬움.

〈비판이론적 관점〉
- 인권 문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등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포스트휴머니즘〉
- 인간과 비인간(기술)의 구분이 없는 일원론적 관점은 초등학교 인권교재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함.

〈탈식민주의 관점〉
-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초등학교 교과 수준에서는 세계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서구권/비서구권의 세계관, 지배 문화, 탈식민주의 등에 대해 이해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이와 같은 우려는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을 설정할 때 우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한 데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인권교과서가 특정한 관점에 치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학생들이 인권을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약한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를 인식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 다양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관점으로만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관점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종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우며, 다양성의 관점이 아닌 사회구조, 계급, 문화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기 어려우며, 개인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개인의 실천 차원으로 인권에 대해 바라보는 오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 보편성을 기반으로 인권을 기술하되, 개별성 또한 존중했으면 함. '구분'하지 않는 법, 우리와 그들로 나누지 않는 것, '충', '린이'등 혐오 표현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는 것과 연결된 보편성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내가 소수자(왼손잡이, 채식주의자, 장애 경험 등)로서 경험을 모두 살펴보았으면 함.
- 자유주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되,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를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으로 보완해야 함.
- 너무 한 관점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되 수준에 맞게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어느 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균형성이 중요함. 예를 들어 다문화나 비판이론적 관점이 중요하지만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취할 것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취사선택하면서 기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생 발달단계에서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을 인식하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판이론·탈식민주의관점에 대한 교육은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식의 측면보다는 소위 사회·정서적 역량에 맞추어 인권친화적인 태도를 길러내는 것이 초등과정에서 중요한 교육목표가 되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학년별, 발달 단계별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령과 장애 등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함께 배워가는 통합형 접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연령 통합과 장애 통합 나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통합 과정에서 인권은 무엇이고 서로 다른 이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존중과 배려의 차이 및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평등과 다양성,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학생의 참여와 주체성을 강조해야 함.
- 시민성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인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를 목표로 두고, 인권을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아닌 인권을 기초로 한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인권의 개념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인 합의와 약속에 의해 발전해오고 있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임을 이해하고,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향임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 바른 인성과 인간의 기본권 교육이 혼재되어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음.

나.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다음으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에서 '인권의 의미와 특징'을 비롯한 8개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물었다. 아래의 〈표 3-8〉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8〉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1차 델파이 조사)

영역	중요하다는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CVR
인권의 의미와 특징	18	4.55	0.83	0.80
인권의 역사적 발달	4	2.75	1.07	-0.60
인권의 유형	11	3.75	0.91	0.10
인권의 확장과 변화	14	3.95	0.89	0.40
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15	4.10	0.91	0.50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16	4.10	0.85	0.60
인권 의식의 확산	15	4.05	1.00	0.50
사회 행동 참여	18	4.30	0.92	0.80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CVR 0.42 이상)을 넘은 영역은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인권 의식의 확산, 사회 행동 참여 등 5개였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서술식 답변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3-9〉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1차 델파이 조사)

영역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
인권의 의미와 특징	- 인권의 의미와 관련한 일상적 사례 이해 -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적용(인간만 존엄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반론도 균형 있게 다루면 좋을 것) -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는 누구인지(난민의 인권, 반려동물의 동물권 등에 대한 고민) - 문화적 권리(언어, 종교, 문화 등을 자유롭게 표현, 수용), 여성의 권리(차별금지, 폭력예방, 사회 참여 등), 어린이의 권리(성장과 발달, 안전), 장애인의 권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 기회)

영역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
	- 편견, 고정관념, 차별, 평등 등 관련 기본 가치 이해(사례를 바탕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인권의 역사적 발달	-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다가 UN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정체성과 집단별 인권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변모한 역사(다만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루는 것이어서는 안 됨) - 인권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역사의 맥락과 함께 다룰 것. 더불어 예전에는 인권 보장이 취약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좋아졌다는 식의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내용 구성에 주의했으면 함 - 편년체 서술보다는 중요한 것을 골라서 가르쳐야 함(예를 들어 나치, 여성 참정권, 메카시즘 등)
인권의 유형	-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UN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 중 중요한 인권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면 좋겠음 -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연대적 권리를 모두 다루되 초등 수준에 맞게 각 영역의 세부 권리들에서 선택함이 중요함 - 인권의 유형과 각 유형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 각 유형에 알맞은 예시 제시(다양한 인권 유형 사례들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필요) - 4세대 인권인 생태적 인권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함
인권의 확장과 변화	- 인권의 발달로 인해 인권이 확장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 인권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한국이나 국제적으로 벌어진 인권 이슈 사례를 중심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인권문제, 펜데믹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한국에서의 학생인권문제, 취약한 청소년 정치참여보장권 문제, 기후위기 속 난민, 식량, 전쟁, 전염병 문제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중문화 등 현대 다양한 사회 변동 및 양상과 관련한 인권의 변화와 양상 - 인간 중심의 권리에서 나아가 4세대 인권, 생태계의 보존과 안녕을 고려한 내용이 다뤄져야 함 - 안전권, 환경권, 주거권, 문화권, 연대권
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 이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외국인 차별과 혐오/ 다양한 집단(연령, 장애인, 계층, 종교)에 대한 차별 문제와 영향 - 차이에 따른 억압에 앞서서 주류문화에 속한 자가 당연히 받는 것들 돌아보기 -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와 인권 논의에서 차별이 어떻게 인권 침해와 연결되는지의 문제를 해당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나 교사를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으며 다룰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 - 인권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인권 문제 관련 사건을 제시 -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추가한다면 자연과의 관계(지속가능성 또는 생태), 한국 특수성에 맞추어 아동(학생)의 인권 문제(학교생활 속에서 교권 이슈와 함께)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함

영역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 UN의 노력,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등의 문서 -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운동(호주제 등 관련 운동과 노력 방안 등) -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제도적 노력 -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사례와 인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초등사회교과서에 제시된 신문고, 격쟁 등의 조선시대 제도도 의미가 있으나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기 어려움. 홍길동전을 저술한 허균도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변화를 이끈 인물이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방정환 선생처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사회적 실천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함) -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소파 방정환,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킹 등) - 헌법, 인권관련 문서·기구·조직·제도·정책, 사회운동 -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이 바꾼 정책, 참여방법, 변화된 사회 구체적 사례
인권 의식의 확산	- 인권의식과 인권친화적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 인권 의식 형성과 캠페인 활동 - 대중문화를 통해 보는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문제 - 인권보호를 알리는 포스터, 표어 제작, 캠페인 실천하기 활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추상적이고 실제적 의미로 학생들에게 다가오기 어려움. 생활 속 인권문제를 조사, 발굴하고 효과적인 해결이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전략토의 등의 구체적인 학습활동 제시가 필요함 - 또래가 활동한 전략 사례 소개(툰베리 등) 통한 기능 함양 -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제 찾아보기(토의토론) - 휴대폰, 게임, SNS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회 행동 참여	-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 - 시민운동 참여 및 실행 - 사회 행동에의 직접 참여의 과정을 경험하고 성찰할 수 있는 활동 필요 - 주변의 문제를 찾고 공론화 하는 방법, 학급자치회 방법 등 - 교실 안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 사회적 행동 참여가 사실상 인권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매우 어려워함. 교사들은 민원 등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음. 이에 사회 행동 참여는 인권 교육자들의 기대치를 낮추되 실제 교사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됨(실질적 효과 차원)
기타	-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예: 인권친화적 도시/ 아동친화적 도시) - 인권친화적 일상(친구관계, 가족관계 등):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해야 함 - 사회적 소수자, 차이에 따른 억압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어야 하며, 나 역시도 이 집단에 속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생태 전환, 기후위기, 윤리적 소비와 환경, 다양성과 차별, 소셜 미디어와 온라

영역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
	인 안전 등 - 온라인 속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에 대한 수업도 필요함(일방적인 보호나 사용 금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탈식민주의 관점과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별도의 장이 필요함. 초등학생 시기에 이 관점들이 별도의 교육이 아닌 인권교육 차원에서 같이 배우는 경험을 한다면 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음 -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서의 인권이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주로 통일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인데, 북한에 대한 이해나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전쟁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영역이 간단하게나마 필요함

다.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 개발의 방향

마지막으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에게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를 개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 구성의 기조〉
- 인권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해야 함
- 인권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권이 상호호혜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 인권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함
-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세계 인류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조직해야 함

〈지식보다는 실천 중심의 구성〉
- 지나치게 많은 것을 교과서에 넣지 말고 학생들이 실천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초등학교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 초등학교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교과서는 편년체 서술보다 과감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추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보다 높은 추상적 지식과 연계될 수 있음.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 억압, 여성의 참정권이나 미국에서의 메카시즘 사례 그리고 반인종 차별주의 운동이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 생각됨. 또 근대 사회와 신분 사회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아동권리협약, 어린이해방선언 등 어린이의 초점을 둔 인권 문서를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됨

- 초등학생 단계에서 활동이나 실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함. 단원마다 인권 보장/확대를 위한 작은 실천단계가 연계된다면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 학교 일상 속에서(학급 단위) 다양한 자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 초등학생 시기에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자치 참여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접근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아닌 '우리 사회, 우리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과 모두의 참여〉

- 초등학생은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하여 배울 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남. 실생활과 연결된 배움은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내재화되고 재구성됨.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 이때 중요한 것이 '모든' 아이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습을 디자인하는 것임. 모두의 존엄과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으로서의 인권 교육과 함께 행위함에 있어서 모든 아이의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겪는 인권문제를 다뤄 인권이 '나'와 관련됨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기존의 인권 관련 교육 자료에서 이를 학생 간 관계에 국한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학교 안의 다른 관계 즉 교사와의 관계, 학교 제도(정책 등)와의 관계도 다룰 필요가 있음(교권과 학생인권 관계의 올바른 이해, 학교 정책 결정 및 운영에의 학생 참여 등)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성찰적 시민 양성〉

- 초등학교 교육은 발달 단계상 성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 경험 제공이 중요함. 교사들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인권 감수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초등학교에서는 협력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작은 돈이라도 기부하는 경험) 등이 중요. 더 나아가 '적극적 시민성' 개념까지 확장 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인권의 문제는 혐오와 관련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높은 사고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 인권교육과 높은 사고력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혐오와 같은 차별은 낮은 사고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높은 사고력 신장이 교과서와 수업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많은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지속함. 구분, 차별, 혐오 등이 특정 개인이나 다른 문화권에 비이성적으로 쏟아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함. 이러한 일상 사례들이 교재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때 이들을 약자나 보호받을 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존재로 기술해야 함
- 인권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 구조의 특징과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임을 다루어야 함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 교사와 학부모와 협력(교과서를 개발할 때도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때도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특정 관련 주제는 〈가족과 토의해보기〉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이 중요함. 예컨대, 인권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을 돕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음. 또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 등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실제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 3~4, 5~6 교과서를 달리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인간의 존엄성,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깊이를 다르게 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함
- 융합적·통합적 교수·학습활동을 제안해 주기를 희망함(예: 인권 존중(침해) 사례(내러티브, 방송, 신문, 동영상자료 등) 제시(찾아보기) → 내용파악 → 쟁점토론·역할극·학습놀이 등 다양한 활동 → 학생간 상호작용 → 삶에서 실천하기 → 환류" 등의 과정을 통해 지식·기능·태도의 융합적·통합적 습득 도모)
- 토의와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들이 목표에 스스로 다가가게 해야 함. 문학 텍스트는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목기린 씨 타세요〉 라는 책은 소수자의 문제라는 것을 표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 가닿게 함. 교과서의 제한된 지면에 에피소드 제재를 싣는 데 주력하기 보다 문학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교과서를 학년군으로 제시하면 두 개의 학년이 하나의 교과서를 활용하기에 수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생략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권 교과서를 써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짐. 학년 수준을 나누어 차시의 내용 중 기본(3학년/5학년)-심화 활동(4/6학년)을 나누어 제시하거나, 아니면 단원을 학년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등 교사가 인권 교과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함.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과와 연계되지 않으면 1회성, 행사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음. 인권교육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해와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인지적 영역의 향상을 넘어 가치, 행동, 태도가 중요한 인권교육이 지속가능하게 학교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타당성 있는 평가방안과 이에 따라 교사들이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묻고,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의 학년군별 주요 내용과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2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9월 7일에 이메일로 질문지를 송부하여 9월 15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20명의 패널이 모두 기한 내에 회신하였다.

가.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아래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이 연구의 관점이다.

>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한다. 특히, 개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집단 간 권력 관계의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권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논의해왔던 관점을 넘어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하자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렇게 구성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 관점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19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CVR 값이 0.90에 달했다(평균 4.45, 표준편차 0.76).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이 적절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에게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을 설정할 때 유의할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 자유주의 관점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중고등학생의 경우 역사의 발달을 배우면서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사를 배우지 않기에 자유주의 자체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경우 현대적 측면의 다양한 인권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권력 관계의 불평등이라는 표현 대신, 교과서에서는 집단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의 차이(또는 집단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불평등 문제)와 그에 따라 차별 및 혐오 현상을

다루는 것이라고 추가 서술하는 것을 제안함
- 인권을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할 때 상호 존중, 협력, 소통 등과 같이 사람의 가치, 관점에 따른 일방적 개념을 비인간존재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수용은 하되, 그 개념은 좀 더 명확히 짚거나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초등과정에서 인권을 비인간 존재까지 확장할 때는 교육 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 인권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겠으나 역으로 접근하는 길도 있음. 인권이 유린되거나 침해되는 상태를 살펴보고, 왜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지 역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대체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여 다양성이나 존중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인권은 다문화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인권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인권의 정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즉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권이 침해되는 역사적 또는 현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였으며, 인권이 왜 중요하며, 그래서 인권 침해가 없는 상태 즉 인권이 지켜지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역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나.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아래의 〈표 3-10〉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이다.

〈표 3-10〉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2차 델파이 조사용)

대범주	소범주	세부 내용
I. 인권의 의미와 유형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의 특징, 인권 관련 가치
	2. 인권의 유형	•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연대적 권리, 인권의 확장과 변화
II.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역사	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 아동,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과 사회 변화
	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 인권 관련 기구의 출범과 노력, 인권 관련 국내·외 법과 제도
III.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	1. 주변의 인권 문제	•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와 영향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실천	•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사회 행동 참여, 실천과 성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0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각 범주의 적절성을 5점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물었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범주 및 세부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3-11〉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1차 델파이 조사)

영역	중요하다는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CVR
대범주의 적절성	17	4.05	1.05	0.70
소범주의 적절성	18	4.20	0.77	0.80
세부내용의 적절성	18	4.25	0.79	0.80

이와는 별개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대범주

-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는지가 있어야 이후,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제시하기 좋을 것 같음. 이에 Ⅳ장을 추가하여 미래사회에서의 인권의 맥락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역사' 범주 안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범주 2와 3의 층위가 달라 적절하지 않아 보임. 역사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과거까지인지, 현재를 포함하는지) 대범주 3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만약 역사에서 과거까지만 다룰 것이라면, 대범주 2는 '과거의 노력', 대범주 3은 '현재의 노력'이 될 것 같은데, 소범주와 세부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도 적절하지 않음. 소범주와 세부 내용을 아우르면서 대범주끼리의 층위를 고려했을 때 대범주 2는 '인권 신장의 사회적 변화', 대범주 3은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의 해결'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함
- 대범주 2와 3의 제목이 차별화될 수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대범주 3: 우리 곁의 인권, 인권의 변화와 참여 등)

2. 소범주

- Ⅲ-2.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실천' 항목에서 '전략'의 의미가 모호함
- 주변의 인권문제를 '일상생활과 인권문제'로 수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권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 있음
-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 근거하는 만큼 생태와 평화와 연결성이 드러나면 좋겠음

3. 세부내용

- Ⅰ-1. 세부내용 중 '인권 관련 가치'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음
- Ⅰ-2. '인권의 확장과 변화'를 인권의 유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지 재고가 필요함. 인권 발달로

그 개념 역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인 만큼 '소범주 1. 인권의 의미와 특징'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해보임. 안전권, 환경권, 주거권 등을 소범주 2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으로 다루길 제안함
- Ⅱ-2. 세부내용 중 법과 제도를 다룸이 적절하나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Ⅲ-1.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와 영향'의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해주면 좋겠음
- Ⅲ-1. 주변의 인권 문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와 같은 재난 상황 속 인권,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에서의 인권 등 최근의 사례가 다루어지는 게 필요함
-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싸움이 가져온 변화(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많은 혜택을 보는 것)

4. 기타
-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학년군별 내용체계표를 제시하기를 제안함. 현재는 전체적인 인권교육 내용과 단원별 내용 구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반영이 잘 안되거나 연계성이 부족해보임. 학년군별 내용 요소가 명료하게 제시된다면 위계성과 교과서 구성에서 누락, 중복 여부를 판별하기 쉽고, 교사들도 인권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도 용이할 것이라 생각함. 만약, 별도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교과서 맨 앞에 학생들도 알기 쉽게 이를 안내하는 방법도 있음(예: 3·4학년에서는 인권에 대해 ~~것을 배워요(배웠어요). 5·6학년에서는 ~~것을 배울 거예요(배워요)
-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됨. 특히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위인이나 유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추상적인 인권 개념이 도출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범주-소범주에 따른 학년별 교과서 개발 시 기계적으로 시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소범주 수업 내용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내용을 체계화할 때 내용 근접성이 높은 교과(국어, 사회, 도덕 등)와의 연계와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이들의 생활공간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영역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생의 경우 인권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기보다는 왜 그것이 인권문제인지를 강조하는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토대로 변화하거나 수용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면 좋겠음

다.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주요 내용

아래의 〈표 3-12〉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초등학교 3~4학년군 인권 교과서의 단원명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2〉 3~4학년군 인권교과서의 단원명, 주요내용 및 전문가 의견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1. 서로를 존중해요.	1) 우리는 소중해요.	- 나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존중하기 - 권리와 인권의 의미 이해하기 -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 실천하기	-
	2)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요.	- 아동권리협약(기본권) 살펴보기 - 일상생활 속 권리와 연결하기 - 교실 속 권리 충돌 사례를 살피고 토의하기 -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실 권리 협약 만들기	- 아동권리협약을 별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어린이답게 살아요'에서 함께 다루길 제안함. 또한 현재 구성은 어린이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놀 권리) 위주로 크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음. 이 권리들은 교실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충돌하므로, 어린이의 권리를 먼저 학습하고 교권이나 학습권, 서로가 정한 규칙을 토대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서 교실 권리 협약 만들기로 이어지면 좋을 듯함 - 3/4학년 혹은 5/6학년 1단원에서 '우리학교 교칙' 혹은 '우리학교 학교생활규정' 알아보기를 제안함
2. 어린이답게 살아요.	1)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에요	- 어린이와 어른을 비교하며 나이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 영화 '마틸다'와 어린이 권리 - 아동노동의 역사	- '어린이답게'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 표현은 어린이 고유의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기엔 적절할 것 같지만, 어린이다움, 학생다움, 여성다움 등의 표현은 사실 지배 규범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어린이다움은 어린이 고유의 권리를 보장받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린이가 마땅히 갖춰야할 속성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음.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누려요'와 같은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아동 노동의 역사가 3~4학년 내용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거움. 이 내용을 5~6학년으로 옮기고, 3~4학년에서는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여 바라보는 활동을 넣는 것을 제안함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2) 놀고 싶어요.	-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권리 찾기 - 나와 친구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살펴보기 - 놀 권리를 이해하고, 선언문 만들기	- 3~4학년군은 초등 사회과 학습에서 '지역화 교과서'를 배우는 학년임.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학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2-2) 놀고 싶어요에서 지역의 시설, 환경 측면을 검토해봄으로써 놀 권리 등의 요소를 탐구할 수 있음 - 어린이의 놀 권리는 직관적이어서 수업 소재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보편적 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봄 물론 아동의 놀 권리가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기술되어 있지만, 해당 단원의 수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식의 함양이나 집단 간 권력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보다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자유주의 시각(또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게 될 우려도 있음
3. 우리는 모두 빛나요.	1) 생각의 벽을 허물어요.	- 편견과 고정관념 인식하기 - 일상생활과 작품 세계에서 편견과 고정관념 찾아보기	-
	2) 남자와 여자,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 성차별과 성평등 이해하기 - 일상 표현 속 성차별 찾아보기 - '성평등 사전' 만들기 - 이야기 속 성차별 요소 찾아 새롭게 고쳐쓰기	- 성평등과 성차별을 다루기 전에 성고정관념, 젠더규범을 먼저 다루고,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규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성평등이고, 성차별은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라는 논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서 주인공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식의 단원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함 - 3~4학년용 교과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실천의 내용을 다루면 좋을 듯함(예:'성평등 사전만들기, 이야기에서 성차별 요소 고쳐쓰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 활동이나, 잘못 쓰이고 있는 학교의 여러 명칭들(ex.녹색어머니회)을 바꿔보는 활동 등) - 성차별, 성평등은 5, 6학년에서도 다루는 게 좋음. 최근 성교육 도서를 둘러 싼 논쟁, 20~30대 청년층의 성별 간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고려했을 때 그러함. 3~4학년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5~6학년에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면 좋겠음 -'남자와 여자, 모두가 주인공이에요.'이라는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타이틀은, 생물학적 성별(sex)과 자기인식적 성별(gender)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제목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면 좋겠음. '모두가 주인공이에요'라는 내용 안에 성차별, 성평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나 그 밖의 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음 -인권을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하자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현재는 5~6학년에만 있음)

다음의 〈표 3-13〉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초등학교 5~6학년군 인권 교과서의 단원명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3〉 5~6학년군 인권교과서의 단원명, 주요내용 및 전문가 의견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1) UN아동권리협약을 알아봐요.	- 나에게 필요한 권리 찾아보기 - 꽝!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 UN아동권리협약 알리기	-
	2)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요.	-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려면 - 학생자치회의 역할은? - 학생자치회의 권리와 책임	- 학생 자치회의 역할, 권리, 책임은 4학년부터 자치회가 시작되므로 3~4학년에 더 적합해 보임. 5~6학년에서는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긴 호흡의 프로젝트 학습처럼 이를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하면 어떨지 제안함 - 학교생활과 인권 측면에서 학생자치회 부분만 제시되었는데 '학교생활 속에서의 교권'의 문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등을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기 등을 통해 삶에서의 인권교육이 가능함 - '우리 교실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수업활동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속칭 '교실붕괴'의 모습이 증가하고 있음. 가장 가까이에 가장 친숙하게 있는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은 출발해야 함. 학교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교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 마주하게 되는 교사의 역할과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또한 지켜져야 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2. 다른 이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요.	1)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봐요.	-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탁탁톡톡 음매 젖소가 편지를 쓴대요) - 코로나와 아동노동 - 정당한 권리 찾기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해)	- '다른 이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요'라는 서술은 사회적 소수자를 타자화시키는 관점으로 오인될 수 있음. 물론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노동자, 장애인, 난민 당사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칫하면 이 그룹들을 자신과는 다른 타자로 인식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른 이들의 권리'라는 말은 이 단원을 배우는 학생들 중 장애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음. 노동자, 장애인, 난민 등은 학생 스스로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타인(부모님)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원명을 수정하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나'와 연결된 노동에 대해서도 다뤄서 '지금'의 '나'가 존재하게 한 노동들을 이해하면 좋겠음. 이를테면 등굣길에서 만나는 노동(부모님의 돌봄, 청소노동자가 깨끗하게 청소해준 아파트 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한 마을, 교통경찰이 정리해준 교통, 준비물을 사려고 들른 문구점 주인아저씨 등)을 다뤄보는 것도 좋겠음 - 헌법에 나오는 노동자의 권리 찾아보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다양성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주민,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에 대한 학습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초등 사회과 학습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이주노동자 권리, 다문화 등의 관점에서 인권 소주제나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	- 뉴스를 통한 세상 읽기 (장애인 이동권)	- 2-1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왜 2-2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중 이동권을 다루는지 의아함. 사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학습권과 노동권 등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임. 그런 의미에서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라는 단원명보다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다룬다는 의미의 단원명이 적합할 것 같음 - 장애인의 인권도 이동권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함. 특

대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히,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같은 반의 장애학생은 많은 경우 이동의 제약이 있는 경우보다는 발달장애로 인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발달장애는 눈으로 드러나는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3)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 찬/반 토론: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해	-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난민 문제로 인권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나 가상 상황이더라도 제목이 갖는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에서는 평화와 통일 이슈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전쟁을 다루면 좋겠음. 난민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현재 또는 최근 전쟁, 우리나라에 대해 다룬다면 6.25 전쟁을 다루는 등 실제 전쟁과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는 생명권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겠음
3.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1) 미디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미디어 속 불편한 점 찾아보기 - 이슈! 기사에 실린 편견과 차별 - 미디어 속 혐오를 넘어	-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요.'를 '우리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봐요.',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등의 다른 말로 바꾸었으면 함 -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사회행동참여 등을 다룰 것을 기대했는데, 미디어리터러시가 등장하였음. 아주 좋은 맥락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움
	2) 기후위기와 인권을 말해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까? - 기후 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

또한 전문가 패널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점을 기술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3~4학년용과 5~6학년용의 내용을 중복하면서 나선형으로 구성할 것인지, 인권의 초등 내용체계를 구분하여 3~4학년용과 5~6학년 내용을 달리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3~4, 5~6학년용으로 달리 하는 것을 제안함
- 학년군 간 연계성을 생각할 때, 학년별로 다른 내용을 배우기보다 대단원은 모든 학년이 동일하

게 하되, 소단원과 세부 내용에서만 학년 차이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함

- 초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체계가 3~4학년용과 5~6학년용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함. 어떤 부분은 중복 혹은 연계(아동 노동, 권리 충동)되어 있으나 어떤 부분은 다소 약하거나 생략(다양한 인권 유형, 인권 관련 기구의 출범과 노력, 전략, 사회 행동 참여 등)되어 보임
-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얽혀있다는 것, 나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과 엮여있다는 것 등이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음. 3~4학년군 교과서에서 어린이 당사자의 권리를 다루고, 5~6학년군 교과서에서 사회 속 여러 범위와 주체들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의 인권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어떻게 엮이는지의 문제를 소단원별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장애인의 인권을 비장애인의 인권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을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면 좋겠음
- 상호의존성 강조: 단원을 구성할 때, (인권침해 관련) 해당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그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학생들이 상호 의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복지의 중요성 강조: 대체로 인권이 침해되는 변수로서, 빈곤, 유색 인종, 여성,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할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인권교육은 인권 자체를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는 모든 인간이 위와 같은 변수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되고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나 조건(복지)이 갖추어졌을 때 인권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시민교육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됨
- 3~4학년과 5~6학년 모두에서 인권관련 선언을 UN아동권리협약만을 다루기보다는 3~4학년은 세계인권선언, 5~6학년은 UN아동권리협약을 다루는 것이 적절함. 역사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의 뿌리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 세계인권선언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의견과 적절성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을 다룰 때,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학생 당사자와 관련된 국내 법안(초·중등교육법 관련규정,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사례로 다루면 좋겠음
- 3~4학년군 교과서의 경우,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꼭지들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5~6학년군 교과서에는 실천 부분이 소략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음. 여기서도 실천과 관련된 꼭지들이 들어가면 좋겠고, 학생들이 작은 실천을 통한 효능감을 느끼게 하면 좋겠음

라.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의 특징 및 각 단원의 구성 방식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의 특징 및 각 단원의 구성 방식을 전문가 패널에게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주제 중심으로 각 단원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되, 한 가지 주제 속에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와 세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사례를 소재로 채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함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각 단원은 대단원 소개 – 생각열기 – 관련 지식 및 정보 소개 – 일상의 사례 및 쟁점 토론 – 마무리 활동의 순으로 구성함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주제별 단원 구성: 단원별로 다양한 인권 주제를 다루되, 실생활 이야기나 실제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주제를 제시함. 또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온 이야기와 사례를 포함하여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토론을 통한 학습: 토론 주제와 질문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쟁점과 딜레마 상황 등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구성함.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성찰하고 인권 주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토론이 되어야 함
- 실천 방안 모색: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앎이 행동으로, 이해가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인권활동가나 인권 영웅들의 실질적인 실천행동 공유하기, 소단원 등의 마무리활동에서 해당 인권주제와 관련된 실천내용 정리하기, 개인적인 수준에서부터 가정·지역사회·공동체가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찾아보기 등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단원의 전개: 단원의 각 차시에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포함되어야 함. 토론, 게임, 역할놀이, 문제해결, 작은 프로젝트 등 수업단계에서부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함
-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토론을 통해, 실제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 교과서에 자주 제시되는 시각자료 만들어 홍보하기, 캠페인 하기 등의 행동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되었으면 함
- 마무리 활동에 반드시 각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소감 말하기와 이 소감을 들은 친구들의 피드백 중심의 활동이 있으면 좋겠음
- 단원의 마무리 부분 같은 데에서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본 인권'과 같은 것을 추가해서 다른 교과에서는 인권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더 쉽게 다른 교과와의 연계 활동을 할 수

있음
- 교과서를 학생용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활동학습지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교사용 지도서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학생용 교과서에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 인권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교과서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넣으면 좋겠음
- 그림이나 사진, 사례가 풍부한 매력적인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음
- 교사에게 많은 자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자료 나눔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음
- 인권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보통 교사들이 신문 기사 등을 가져와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 정보가 많으면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움. 이를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자료를 개발하기를 제안함
- '인권교과서'개발 시 삽화나 기사자료, 읽기 자료 등을 인용, 제시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인권적 요소가 담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함

제5절 | 소결

이 장에서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해 진행한 문헌 분석 결과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리, 내용체계 구성 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UN인권교육훈련선언」의 정의를 따라 인권교육을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개념화하며,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본 연구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총체성, 맥락성, 비판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다. 총체성의 원리는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감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 체계에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고, 맥락성의 원리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비판성의 원리는 인권 문제를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고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제시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권의 확장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인권 개념에 대한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이고 기능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 체계 구성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인권교과목 도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전에 국가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 판단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2022 개정 총론은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에 지속

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권교육을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한다. 인권교육 관련하여 2022 개정 총론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후·생태환경 변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등 우리가 새롭게 마주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권 관련 가치, 인권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2022 개정 총론은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사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2022 개정 각론에서 교과별로 인권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론에서는 인권교육이 바른 생활, 사회과, 도덕과에 치우쳐져 있었고, 해당 교과에서도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인권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과의 경우에도 인권교육과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각론에서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총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정보기술의 발달, 생태위기 문제와 관련된 성취기준, 내용 요소들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권의 변화와 확장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다루는 관점과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에 따라 교육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1차 델파이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문가들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관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둘째, 전문가들은 인권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①인권의 의미와 특징, ②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③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④인권 의식의 확산, ⑤사회 행동 참여 등

총 5개 영역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지식보다는 실천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를 강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권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연구진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인권교육의 관점과 내용 체계안, 인권교과서의 단원 구성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첫째, 전문가들은 인권에 관련된 논의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며 다문화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을 포함한 대안적 관점을 고려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둘째, 전문가들은 〈표 3-9〉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데 합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만,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대범주가 더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인권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용체계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학년군별로 내용이 심화·확장될 수 있도록, 배제적인 통념이나 관습적 표현에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문헌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표 3-14〉와 같이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최종적으로 구성·확정하였다.

〈표 3-14〉 본 연구의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 내용 체계

대범주	소범주	세부 내용
I. 인권의 의미와 유형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의 특징, 인권 관련 가치
	2. 인권의 유형	•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동물권과 인권, 기후위기와 인권, 정보권
II.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	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 아동,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과 사회 변화
	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 인권 관련 기구의 출범과 노력, 인권 관련 국내·외 법과 제도
III. 일상의 인권 문제와 우리의 실천	1. 일상의 인권 문제	•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와 영향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 일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사회 행동 참여, 실천과 성찰

본 연구에서 수립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범주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인권의 의미와 유형'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이고 인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본다. 학생들은 인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자유, 평등, 정의, 평화, 공존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인권 개념을 이해한다.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에 대해 탐색한다.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인권의 유형이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 중이라는 것을 다룬다. 자유권(예: 신체의 자유,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에서 사회권(예: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유권, 사회보장권)과 집단권(예: 환경권, 평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으로 인권 유형이 다양화되어 왔다는 것을 탐색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AI, 전 지구적 생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 문제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미래세대와 비인간 자연으로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둘째, 'II.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에서는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다룬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회 운동 사례를 통해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양한 집단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식의 노력에 대해 탐색한다. 학생들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신장을 위한 성공적인 사회운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결과의 일환으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왔다는 것을 살펴본다. 인권 관련 국내외 기구들(예: UN,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예: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률(예: 근로기준법),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예: 헌법소원) 등이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III. 일상의 인권 문제와 우리의 실천'에서는 일상의 인권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대범주가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대범주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인권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것으로 이 대범주의 내용은 확장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원리와 방법 등을 도출해본다. 소셜미디어, 대중매체, 거리부스 등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 방법 등이 내용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일련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이후 계획과 행동으로 연결해본다.

제4장 초등 인권교육 교육과정

제1절 성격 및 목표

제2절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제3절 교수·학습 및 평가

제4장 초등 인권교육 교육과정

제1절 | 성격 및 목표

1. 성격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계이다. 인권교육은 인간 차원의 권리에 중점을 두지만 이는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로서 주변과 공화(共和)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넘어 인권 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생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를 포함한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양식을 사유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시공간을 연다.

인권교육이 상정하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뜻하나, 여기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과 자율적 의지를 가진 특별하고 예외적인 개체가 아니라 인간-너머 세계의 복잡한 연결망에 얽혀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인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대 인간상에 국한된 기존의 인간 개념의 한계를 인식할 때, 다양한 존재들의 소외와 차별, 그들을 향한 착취와 폭력에 주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인권 논의가 가능해진다.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이다. 인권은 누구나 갖는 권리인 동시에 맥락의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을 둘러싼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이 존재하므로 인권교육은 그러한 논쟁을 다룸으로써 인권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인권을 통한 교수·학습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역량을 기른다. 그러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차원의 인권교육이 분리가능하거나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 얽혀있음에 유의한다. 인권교육은 학생의 일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인권의 문제를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일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집단, 국가, 종(種) 간의 문제를 다룬다.

2. 목표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마을, 지역, 국가, 세계, 지구 등 여러 층위의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한 배움을 추구한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 개념을 알고, 인권의 관점에서 주변 세계를 인식하며, 인권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며,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권 개념을 다루는 시공간적 맥락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인권 문제의 복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룬다.

인권교육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을 존중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

(2) 인권 개념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를 식별하고 탐구한다.

(3)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제2절 |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1. 내용 체계

<table>
<tr><td colspan="2">핵심 아이디어</td><td colspan="2">•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생성된 개념이며,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유형이 변화한다.
• 인권 개념은 종(種)차별주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나이, 성, 계층, 장애, 인종, 언어, 종교, 지위, 성적 지향 등을 토대로 인권 문제가 발생해왔고,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 나와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타인과 연대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3">범주</td><td colspan="2">내용요소</td></tr>
<tr><td colspan="2">초등학교</td></tr>
<tr><td>3~4학년</td><td>5~6학년</td></tr>
<tr><td rowspan="2">I.
인권의
의미와 유형</td><td>1. 인권의 의미와 특징</td><td>나와 너의 소중함, 자아 존중, 타인 존중, 공정과 공평, 권리와 책임, 권리 간의 충돌</td><td>존엄성과 인권, 인권의 특성(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 권리와 책임, 권리 간의 충돌</td></tr>
<tr><td>2. 인권의 유형</td><td>자유권적 인권(발달권, 보호권), 사회권적 인권(교육권), 집단권(다를 수 있는 권리), 아동 권리, 학생 인권</td><td>자유권적 인권(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사회권적 인권(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집단권(환경권, 다를 수 있는 권리, 난민의 구제받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동물권과 인권, 기후위기와 인권, 정보권</td></tr>
<tr><td rowspan="2">II.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td><td>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td><td>아동과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과 사회 변화</td><td>장애인과 노동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과 사회 변화</td></tr>
<tr><td>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td><td>유엔,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td><td>유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헌법</td></tr>
<tr><td rowspan="2">III.
일상의
인권 문제와
우리의 실천</td><td>1. 일상의 인권 문제</td><td>나이 차별, 아동 학대, 성 고정관념, 성차별</td><td>장애인 차별, 미디어 속 혐오 표현,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td></tr>
<tr><td>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td><td>문제 상황 확인, 해결 방안 탐색, 실천 전략 도출 및 실행</td><td>문제 상황 확인, 해결 방안 탐색, 실천 전략 도출 및 실행</td></tr>
</table>

2. 성취기준

가. 3~4학년군

[4인01-01]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

[4인01-02] 어린이가 가진 권리를 알아보고 어린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힌다.

[4인01-03] 차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키운다.

나. 5~6학년군

[6인01-01]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알아보고,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6인01-02]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6인01-03] 어린이의 권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

제3절 | 교수·학습 및 평가

1. 교수·학습

가. 교수·학습의 방향

(1) 인권교육의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도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권 관점에 기초하여야 한다. 학습의 모든 요소와 과정들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모든 수업 활동은 모든 행위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교육은 기초 지식 이해, 태도 및 가치 함양, 문제 해결력과 실천 능력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구한다. 인권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3) 인권에 관련한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인권적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인권 감수성 함양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5) 일상생활과 사회 현상을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및 행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6) 인권교육의 학습목표, 학습자 상황,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7)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수·학습 방법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학습 준비 정도나 성취기준 도달 정도뿐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을 모두 고려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

(1)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한다.

(2) 학습자의 유형, 성취수준, 학습 속도, 흥미, 경험, 요구,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고 교육 현장에 적합한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자의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발문 기법을 활용한다.

(4) 사회 쟁점 기반의 토의·토론 학습, 탐구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가 자기 성찰을 토대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5) 학습자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사회참여 체험학습, 모의 학습 등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6)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적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7) 인권 관련 텍스트, 도표, 통계, 미디어, 예술, 기록물, 관련 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2. 평가

가. 평가의 방향

(1) 인권교육의 학습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의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성장을 돕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3) 인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기능, 가치와 태도, 실천을 포괄하는 평가 방법을 지향한다.

(4) 평가 요소는 인권에 대한 지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가치와 태도, 감수성 함양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5) 인권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때 단순한 지식의 습득과 재생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일상생활과 사회 현상 안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6) 인권에 대한 가치 및 태도를 평가할 때 인권 친화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탐구 기능, 비판적 성찰 기능, 협력적 소통 기능, 실천 기능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7)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평가할 때 친인권적 행동 실천 의지, 공감 능력, 인권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 평가 방법

(1) 협력적 교수·학습에 기반한 인권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편적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측정을 넘어서 학습자의 비판적 분석력,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필평가와 더불어 관찰, 구술, 토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자기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2)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을 평가한다.

(3)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사회참여 체험학습, 모의 학습 등 활동을 관찰하여 학습자의 인권친화적 가치, 태도, 실천 능력을 평가한다.

(4) 학습자의 특성, 유형, 성취수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5)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6)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인권교육의 성취수준을 가늠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7)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다.

제5장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제1절 개요

제2절 주제 선정 및 단원 구성

제3절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구성과 특징

제5장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제1절 | 개요

1. 기본 방향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년 위계를 고려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기존의 인권 관련 단체, 17개 시·도교육청, 인권 시민단체나 교사 모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권 교육 자료가 제작되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시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인권교육은 별도의 교과가 없어 어릴 때부터 인권을 접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사회와 도덕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다루어지고 있다.

인권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학년군별 위계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년군제에 맞게 3~4학년용, 5~6학년용으로 인정도서 기준에 준하여 우선 개발하였다. 학년군별로 3개 영역으로 크게 세분한 후 17차시 1단위를 고려하여 영역별로 배움길, 5가지 소주제, 도움길로 구성하였다. 배움길은 첫 번째 소주제와 함께 한 차시로 구성하였으며 도움길은 별도의 차시를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 정책으로 각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교과목, 2021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제시하였다.

2. 개발 과정

가. 개발진 구성 및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진 2명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초등학교 현장교사 6명을 섭외하여 각 영역별 단원을 집필하였다. 집필진 선정은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인권교육 워크북 등의 인권교육자료나 교과서 개발 경험, 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연구회나 관련 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유럽평의회 인권교육자료, 프랑스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인권 부분, 국내 인권교육을 위해 개발된 자료를 함께 공부한 후 본 연구가 도출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토대로 학년군에 적합한 인권 영역을 추출, 관련 자료를 선정하고 활동 방법을 논의하여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집필한 원고를 교차 검토한 후 환류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표 5-1〉 개발진 구성원

순	이름	지역	학교	성별
1	장경훈	경기	덕장초등학교	남
2	최은경	경기	대하초등학교	여
3	이상근	충북	청천초등학교	남
4	이우철	전북	무주초등학교	남
5	전세란	서울	서울정덕초등학교	여
6	신창훈	경북	정평초등학교	남
7	강한아	경기	능내초등학교	여
8	이태환	경기	능길초등학교	남

나. 전문가 검토 및 의견 반영

연구진은 개발진에서 집필한 교과서 및 지도서 초안을 1차 워크숍을 통하여 함께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인권교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검토진을 구성하여 서면 검토를 요청한 후 수정·보완 하였다. 연구진 검토 의견과 그에 따른 주요 수정·보안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연구진 검토 의견 및 수정·보완 내용

대단원	소단원	협의 및 수정 요청 사항	수정·보완 내용
1. 서로를 존중해요.	1-1 소중한 나	• 123쪽. 가. 나는 소중해 「민수의 고민」 사례 관련해 '우등생' 설정 지양, 대한민국 3~4학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상황과 소재를 다루었으면 함. 가급적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여러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아이들 일상에 맞닿아 있어야 하나 사적 권리 침해 수준에만 머물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는 게 필요함. 맞벌이 부부의 불가피한 방임 사례 등을 제시 고려)	• 우등생 설정 삭제함 • 맞벌이 부부의 상황을 설정함 • 다양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보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권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또한 비록 사적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권리 개념을 배우는 차시에서는 학생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까울 때 더 받아들이기 쉽고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봄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 126쪽. 나.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네 친구 이야기에서 도윤, 원호, 민아, 명수의 상황과 4가지 권리와 연결이 어렵게 느껴짐(상황에 있어 여러 가지 권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4대 권리에서 빠지는 상황은 없도록 사례를 제시해야할 것임) • 사례에 등장하는 이름을 가급적 중성적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 고려(교과서 전체에 적용되도록 반영) • '위의 네 친구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논해 봅시다' 활동의 필요한 노력의 예시에서 '주어'가 없어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하는지 모호함 • 맨 아래 부분 유엔아동권리협약 54가지 약속을 살펴보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수업시간에 모두 살펴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지도서에 넣었으면 함 •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임	• 중성적 이름으로 대체함 • 네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자기 자신을 포함) 어떻게 노력해야할지 생각하는 활동으로 수정함 • 54가지라는 단어 삭제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나의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무리함
	1-4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 129쪽. 가.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초등학교 점심시간 사례 관련해 인간과 인간 권리 충돌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 권리 충돌(인간이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아무 거나 다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충돌 상황 등) 사례, 초등학생이 느끼는 공정과 공평 관련 사례(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더 주는 것과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권리 충돌은 5~6학년군에서 다룸 • 피구 금지의 사례를 통해 공정과 공평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서에 기입

대단원	소단원	협의 및 수정 요청 사항	수정·보완 내용
		한다는 것 등이 충돌하는 상황 등)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봤으면 함	
	도움길	• 133쪽. 제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초등 3~4학년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고려해 봤으면 함	•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포스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학생 개인의 눈에 들어오는 협약이 있을 것임. 그 협약과 내 삶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이 자료를 도움길에 제시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이 수업 중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음
2.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 중간보고시 인권위에서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학생들이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작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부각되도록 했으면 함 • 사례 중간중간에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 사례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좋겠음(삽화 등)	• 발문 수정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삽화 요청함
	생각해볼까요?	• 136쪽. 어린이날 선언 관련한 발문이 어렵게 느껴짐. 처음에는 어린이날 선언을 읽고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나누는 게 들어갔으면 함. 어른이 바라보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를 주어로 하여 우리는 00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함	• 워크숍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 피리부는 사나이 에피소드를 넣는 것을 제안하여 드라마에 나온 어린이해방선언문으로 대체하고 발문 수정함
	2-1 어린이의 세계	• 137쪽. 1-1로 되어 있는데 2-1로 수정 • 137쪽. 가. 나이에 대한 생각 '아홉 살은 힘들다' 시에 대한 활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홉 살이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 아홉 살이어서 하기 싫은데 해야하는 일 등을 묻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음	• 반영 - 137쪽 2-1로 수정함 -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일을 묻는 발문으로 수정함
	2-3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 141쪽-142쪽. 어린이로서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에 대한 질문이나 활동을 하나 넣으면 좋겠음	• 2-1 어린이의 세계에 발문으로 반영함
	2-4 나중에 말고 지금	• 143쪽. 2-4 소단원 제목을 나중에 말고 지금 놀아 등 소단원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했으면 함 • 144쪽. 나. 우리들의 놀이가 놀이 자체보다도 놀 권리에 보다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음	• '지금 놀고 싶어요'로 제목 수정함 • 지금 놀면 행복한 미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것일까요? 라는 발문으로 놀 권리 반영함
3.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빛나요.		• 149쪽. 3단원 제목을 성 고정관념에 대해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했으면 함	• 반영
	생각해볼까요?	• 150쪽. 생각해볼까요? 그림에서 성별 차이가 치마, 바지 등으로만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자료 삭제 및 대체함

대단원	소단원	협의 및 수정 요청 사항	수정·보완 내용
		성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을 찾아봤으면 함. '부모님들이 배우시던 교과서'보다는 옛날 교과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해도 좋겠음	
	3-1 우리를 가두는 생각	• 152쪽. 활동에 대한 지시문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면 함(지도서에 기술하는 것과는 별개로) • 152쪽. 마지막 부분에 '성별의 감옥'에 대해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이후에는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좋겠음	• 반영
	3-2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말	• 153쪽. 가. 남자니까! 여자니까! 부분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 데 남자니까-와 여자니까 사례가 동수로 제시되도록 균형을 맞췄으면 함(지금은 총9개인데 짝수로 맞추어 제시할 것)	• 반영
	3-3 재미 속에 숨은 감옥	• 155쪽. 제시된 동요 중 2번째 것에 넥타이, 행주치마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것으로 제시할 것 • 3-3 소단원 제목을 재미 속에 숨은 감옥-> 재미 속에 숨은 고정관념으로 표현	• 해당 동요가 성 고정관념은 명확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시 자료로 유지. 수정 요청 사항의 의도를 반영하여 첫 번째 동요 변경함 • 반영
	3-4 남자 말고 나! 여자 말고 나!	• 157쪽. 성별의 감옥->성별의 고정관념으로 표현 • 157쪽. 가. 그건 상관 없어요 활동표에서 '나는 사실 ( )색을 좋아한다'는 표현에서 '사실'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므로 삭제하면 좋겠음 • 158쪽. 나. 나의 빛을 찾아서 활동 예시 추가 및 수정(나를 가두는 생각들에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보다 색깔이나 머리스타일, 액세서리가 사용된 표현 제시/ 자유롭게 빛나는 나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고 떠드는 나-> '떠드는'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므로 활발한 등의 표현으로 수정)	• 반영
	3-5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 160쪽. 나. 너와 나의 빛을 찾아 회의 주제의 '성별의 감옥'을 성별의 고정관념으로 표현 • 마무리글 추가, 고정관념에 대한 정리	• 반영
	도움길	• 161-162쪽. 인권 수다 부분에 심화할 수 있는 내용 고민해 봤으면 함(어린이동화책 등 예시 자료 활용), 좀 더 알아볼까요? 부분에 파란색과 분홍색에 담긴 고정관련 사진을 뉴욕 수컷 펭귄 이야기로 교체 • 162쪽 마지막 부분에 발문이나 정리글 넣어서 마무리	•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의 경우 사후에 실제 모델이 된 펭귄이 이성과 가족을 맺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음. 해당 부분은 직업과 관련한 성 편견으로 교체함

다음은 델파이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10명에게 교과서 모델 1차 시안에 대해 인권교육 내용 체계 반영,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 포함 여부, 학생 연령에 적합한 활동과 자료 사용, 학교 현장 활용성, 기타 의견으로 5개 검토 기준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진행한 전문가 검토 의견과 그에 따른 주요 수정·보안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주요 수정·보완 내용

1. 인권교육 내용 체계가 잘 반영되었는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6	• 내가 가진 권리가 존중받는지,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 3~4학년 1단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며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발문을 추가함
	• Ⅱ.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 부분에서 3~4학년은 아동, 여성 / 5~6학년은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 신장이 나옴. 그러나 대상별로 치우치지 않고 주제별로 접근하는 노력도 한두 가지 포함되면 좋겠음. 인권 신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 한두 가지 포함되었으면 함	• 일부 반영 - 인권 기관 소개
	• 사회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좀 더 시의성 있는 인권 관련 내용들을 담아내면 좋겠음. 가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을 인권의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안내해주었으면 함. 예를 들면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전쟁, 혐오 표현 등과 같이 뉴스에서도 접했던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비교해보고, 여러 입장,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접하면 좋겠음	• 3~4학년군에서 어린이의 눈으로 학교나 사회의 불편한 점을 찾는 활동이 있음
전문가7	• 5~6학년 교재 1-3과 1-4는 맥락이 명확히 와 닿지 않으므로(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등을 살펴볼 차례가 아닌가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생들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학교임.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는 '학생자치회'이기에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함
전문가8	• 〈3~4학년군〉 3단원이 '성차별'의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 판단됨. 내용요소에 포함된 '아동학대'의 요소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해당 단원의 목표는 '성 고정관념 인식과 탈피'이므로 '아동 학대'는 관련성이 부족하며, 해당 내용을 2단원에서 다루고 있음
	• 〈3~4학년군〉 첫단원 1-1 '소중한 나'에서 '나의 존귀함'과 '권리'를 조금 더 충분히 배울 '읽기'자료와 논의 자료가 필요함. 현재 아이들은 타인의 권리 이전에 자기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음. '자존감'에 관한 탐색이 학년군 첫 번째에 이루어지면서 인권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민수의 고민을 해결해 보는 과정 후 어린이 권리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제시함 •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 또한 자존감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5	• 〈3~4학년군〉 – p.3 발문 중에 “민수는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민수의 부모님은 민수를 소중히 대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춰짐. 학생들에게서 아동 학대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를 자신에게 빗대어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음. 지쳐서 책상에 엎드린 민수에게 상상하는 말풍선을 그려놓고 “민수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민수가 되어 속마음을 적어봅시다. 정도가 어떨까 함 – 덧붙여, 내용 구성이 오로지 민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민수의 휴식할, 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맺음 되어 있어 부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임. ‘요즘 지쳐있는 민수를 보며 부모님은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정도로 균형을 맞추면 좋을 듯함 – p.6 노력해야 할 사람과 필요한 노력 〈표〉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내가(나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일부 반영 – 민수의 기분을 묻는 질문은 앞의 질문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음.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시키기 위해 맞벌이 가정,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 또한 글에 추가함 – 활동 ‘나’에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민수와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해야 좋을지 묻는 질문을 추가함 – 네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자기 자신을 포함)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하는 활동으로 수정함
	• 〈5~6학년군〉 – p.50 학생회장의 고민, 학생회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사가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고 공약을 당선자가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필요하다면 교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공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당선자가 표심을 얻기 위해 거는 약속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뒷받침되면 좋을 듯함 – p.86 툰베리의 연설을 예문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한 선정인지 제고가 필요함(툰베리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비건 푸드'를 사먹고 천만 원 대의 동물 가죽을 사용한 의자를 구입하는 등 환경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밝혀졌다. #나무위키)	• 반영 – ‘제티 공약’에 대한 학생회장의 고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음. 학생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이며, 이 공약은 학생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했던 사례임. 그래도 교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발문은 중요함에 동의해서 해당 질문을 수정하였음 – p.86 관련 출처의 신뢰도가 떨어짐
전문가6	• 23쪽 해야 하는 것을 마치고 노는 것 역시 자신의 책임을 배우는 길임. 2-4 도입 문장으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임	• 반영 – ‘하던 거 다 하고 놀아’ 로 수정함
	• 57쪽 문제점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면 좋겠지요?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은 안되고, 동의 없이 배포해서도 안 되는 등의 현장 조사 유의점을 따로 박스로 제시해야 할 듯함	• 반영
	• 58쪽 ‘신봉선을 아이유로 만들어주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이해도가 낮고, 사람의 외모만을 중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좋겠음	• 반영 – p59쪽 내용을 삭제함

3. 학생 연령에 적합한 활동과 자료가 사용되었는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3	• P.7-8 책임의 개념 설명 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관련 - 책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다음, 우리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연결짓는 부분에서 그 이후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책임이 왜 먼저 필요한지 활동해 본 뒤, 그에 따른 권리를 같이 확인해 보는 구성은 어떨까 싶음	• 일부 반영 - 활동 사이 혹은 활동 설명글에서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한 후 책임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
	• P.10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봅시다.' 발문 관련 - 해당 내용은 구성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3학년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해주고 해당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의 발문 이해도를 조금은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반영 불가 - 이 발문은 위의 활동 '가'에 제시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결하는 것임
	• P.18 어린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는 무엇이 다를까요? - 해당 활동 이후에 '어린이들만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줘야 or 바라봐야 할까요?'와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함	• 반영 - 어른은 어린이의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로 수정함
	• P.28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발문 관련 -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노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어른들의 노력 부분을 3~4학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음. 우리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반영 불가 - 어른에게 어떻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은 소극적인 권리 수호로 보임. 어른의 노력을 묻는 발문은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행사의 의미에서 필요한 발문임
전문가4	• 14쪽. 〈좀 더 알아볼까요?〉 활동에서 '위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활동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기부활동 정도일 것 같음. 다양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발문이 있으면 좋겠음	• 반영 - "위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로 수정함
	• 18쪽. 〈활동 나〉 벤다이어그램에 어린이와 어른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채워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만의 세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반영 - "어린이와 어른의 같은 점과 다른점을 찾아봅시다."로 수정함
	• 52쪽. 〈활동 가〉에 의견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예시 자료가 학생들이 실제 의견을 모을 때 도움이 될 듯함. 다수결 이외의 방법,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들도 좋음	• 일부 반영 - 스티커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을 제시함
전문가5	• 〈3~4학년군〉 - 1단원은 1-1~1-4까지의 구성이 연속적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중심의 토의활동으로 이루어져 3~4학년에서 수업하기에 다소 지루하거나 교사가 끌고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2단원처럼 다양한 활동 자료가 투입되면 활용도가 올라갈 듯함	• 일부 반영 - 학생들의 실제 삶과 가까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생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다양한 학생중심의 활동도 중요하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봄

4.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적합한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5	• 〈3~4학년군〉 1단원 - p.4 문항 속에 어린이 권리의 뜻이 섞여 있는데 나. 내가 가진 권리라는 제목 아래에 '권리'의 뜻을 별도로 부각시켜 정리하면 좋을 듯함. "권리란, ~~~~을 말해요" - p.6 태경의 말(짝활동, 내가 남자라서~)이 생존의 권리인지 참여의 권리인지 헷갈림 - p.6 '위의 네 친구가 ~ 연결해봅시다.' 의 내용 구성 방식을 개선했으면 함. 이름과 권리를 한 개씩 연결하는 것이라면 좌/우로 나누어 선 긋기가 낫고, 중복 선택이라면 권리와 이름의 위치를 바꿔야 할 것 같음 - p.5 보호의 권리 中 '차별과 폭력, 심한 노동 등 아동에게(전부 아동에 관련된 것이므로 삭제)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과 폭력, 심한 노동 등 위험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제안함 - p.10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임.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음. →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어느 한V쪽만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V쪽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좋은 방법이 아님 - p.11 권리 존중 약속 상자 →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약속 상자 - 책임을 포함하여 예시를 다양하게 들면 좋을 듯함	• 반영 - 권리의 정의를 박스 형태로 적음 - 태경의 경우 참여의 권리, 보호의 권리 모두에 해당됨 - 실제 교과서를 만들 때 편집가능함 - 제안대로 문장 모두 수정함 - 책임을 존중한다는 말은 어색한 감이 있고 서로를 권리를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함
	• 〈3~4학년군〉 2단원 - p. 18 ~다를까요? (나이와 이어지는 맥락,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움. 명료한 표현을 제안함 - p. 20 그림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 『헨젤과 그레텔 』은 (닫힘꺽쇠 추가) - p. 20 활동 제목(나.어린이가 만드는 어린이)에 작은따옴표(' ')로 강조하거나 타이틀(2-2. 이린어)과 통일했으면 함. ex.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 어린이가 만드는 '어린이' - p. 20 위에서 'O린이라는 말을 기사나 뉴스에서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봅시다'라고 했는데 ◉의 세 가지 발문의 내용이 중복됨	• 일부 반영 - 여러분은 어린이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른은 어린이의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로 발문 수정함 - 기호 추가함 - 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로 제목 수정함 - 세 가지 발문을 포괄하는 지시문이라 수정하지 않음
	• 〈3~4학년군〉 3단원 - 3단원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활동을 '진로'와 연관지어 보길 제안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을 모두 적어봅시다. 그 중 남자가/여자가 하는 일을 나누어 표에 적어주세요. 이후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사례나 활동을 넣는 게 어떨지 싶음	• 일부 반영 - 단원 도입 '생각해 볼까요.'와 도움길 '인권 수다'에 직접 관련 성 역할 고정관념 자료 제시함
	• 〈5~6학년군〉 1단원 - 1단원 p.43 표 안의 온점 삭제 및 글씨체 통일 / 가, 나, 다, 제목 뒤 온점 삭제 - p.52 작은따옴표 위치 수정 : ' 부서 ' → '부서' - p.54 이야기 3. 행사에서 '행사'와 '제안' 중 무엇을	• 반영 - P.43 표 온점 삭제 및 글씨체 통일함 - P.52 작은따옴표 수정함 - P.54 '행사'를 강조하여 수정함 - P.57 자간 수정함

	강조할지에 따라 3의 제목도 통일성 있게 수정 - p.57 사회문제의 원인은 ~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 다른 문자들과 동일하게 자간 수정 - p.58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실천하자는 예로 든 사진('안 웃겨요' 포스트잇 여러 개 붙여 놓은 사진)은 적절해보이지 않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반대하는 예가 필요함.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찾자는 발문이나 이러한 자료는 오히려 그 뒤에 오는 '다. 참여 계획 세워보기'의 도입에서 제시하는 것이 흐름상 더 적절해보임	- P.58 내용 분량 조정으로 삭제하였음. 추후 지도서에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임
	• 〈5~6학년군〉 2단원 - 2단원 p.68-69 각자 해결 방법 생각해보게 한 후,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끝맺음할 수 있도록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와 '다. 만능 키오스크를 만들어봐요'의 순서를 바꿔 제시하면 흐름상 자연스러울 듯함	• 미반영 - '나'에서 사회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다'에서 학생들이 키오스크를 디자인하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성을 일정 부분 부여할 수 있음
	• 〈5~6학년군〉 3단원 - p.76 표(함께 행동해요)의 3-5 타이틀과 p.86의 타이틀(기후정의를 위하여)이 일치하지 않음	• 반영 - 소제목 수정 후 반영

5. 기타 의견(기타 표현이나 문장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롭게 제시)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7	• 28쪽 내용 일부 확인, 수정, 보완 필요 - 「어린이」제1권 제3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음 → 사실인가요? 그 당시 '전화를 건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음. 출처 확인이 필요할 듯함. - "4월 1일은 초 1일은 무슨 날인가요" → 오타인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음	• 일부 반영 - 어린이 1권 3호의 원글에 전화를 건다는 내용이 있음 - 4월 1일로 수정함
전문가8	• [5~6학년교과서] 〈단원 내용 체계〉 - 〈1.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단원에는 5개의 소주제가 있음. 각 소주제별로 '가', '나', '다'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3~4학년군이 '가', '나'로 구성된 것을 참고한다면 일관성 있게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편집된 '가', '나', '다' 체계로 가져간다면 어떤 학습단계를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함(굳이 3꼭지로 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됨. 가-나를 합칠 수 있는 단원도 있고, 나-다를 합쳐 하나의 소주제로 할 수 있음. 세 꼭지로 나누니 활동1, 2, 3의 전형적 학습틀로 보이기도 함)	• 미반영 - 3,4학년군과 5,6학년 군의 내용체계에 대한 위계성을 위해 내용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음.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영역은 방대한데 이를 구현하는 분량은 한계가 있음.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참고자료들이 수록될 예정임

제2절 | 주제 선정 및 단원 구성

1. 주제 선정

가. 3~4학년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요',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 빛나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서로를 존중해요'에서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알고 누림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개인 혹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인권 문제가 '나'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라는 개념 렌즈로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실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마주했을 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나아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에서는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어린이의 세계, 어린이의 놀 권리, 어린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나이를 무기 삼아 어린이의 권리를 부드럽게 꺾어버리기도 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거두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는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른의 손에 자신의 삶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어린이가 알게 모르게 겪었을 이러한 일상 속 차별과 배제를 사례로 하여 권리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임을 알고, 어린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였다.

'우리는 모두 빛나요.'에서는 주변의 성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차별 사례를 살피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

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눈으로 일상을 살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인간은 유아기부터 성 고정관념에 노출된다. 이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고착되고 심지어 불평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아동기부터 성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습은 우선 다양한 일상의 사례를 살피며 고정관념을 알고, 그로 인한 피해를 인권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내재한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와 생활 문화 속 성 고정관념을 찾아봄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한다. 최종적으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존엄성을 위한 인권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나. 5~6학년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이해하고, 갈등과 갈등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알고 누림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개인 혹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공식적으로 '학생자치회'라는 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자치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실천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언가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야 하고, 토의하는 방법을 배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지켜야 함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에서는 사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비인간 동물 등 소수의 권리가 침해 되는 상황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

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소수자를 시혜적인 관점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도록 소수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 소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인정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하였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에서는 일상 속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디어와 언어 표현, 기후위기와 관련된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인권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삶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평등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하였다.

2. 단원 구성

가. 3~4학년

단원	주제	활동 내용	내용 체계 범주
1. 서로를 존중해요.	1-1. 소중한 나	㉮ 나는 소중해 ㉯ 내가 가진 권리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 모두 함께 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I-2. 인권의 유형 II-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1-3. 권리의 친구, 책임	㉮ 나만 누리는 권리? ㉯ 모두 함께 누리는 권리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1-4.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 같은 상황, 다른 생각 ㉯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I-2. 인권의 유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1-5. 서로 존중하는 우리 반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해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2.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2-1. 어린이의 세계	㉮ 어린이도 힘들다 ㉯ 어린이와 어른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2. 이린어*	㉮ 해처럼 씩씩하게 ㉯ 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	II-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II-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2-3.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 어린이의 눈으로 찾기 ㉯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기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4. 지금 놀고 싶어요.	㉮ 지금 잘 놀고 있나요? ㉯ 우리들의 놀이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5. 시민으로 살아가요	㉮ 어린이도 할 수 있어 ㉯ 어린이 시민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3.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3-1. 우리를 가두는 생각	㉮ 그 사람의 생김새 ㉯ 남자답게! 여자답게!	I-2. 인권의 유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3-2.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목소리	㉮ 남자니까! 여자니까! ㉯ 이렇게 말해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3-3. 재미 속에 숨은 고정관념	㉮ 우리의 재미 속에 숨어 있어요 ㉯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음악회를 열어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3-4. 나의 빛을 찾아서	㉮ 그건 상관없어요 ㉯ 나의 빛을 찾아서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3-5.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 우리는 모두 빛나고 있을까? ㉯ 너와 나의 빛을 찾아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 이린어는 1923년 3월 간행된 『어린이』라는 잡지의 이름을 당시 오른쪽부터 글자를 읽을 때의 순서대로 읽었을 때 표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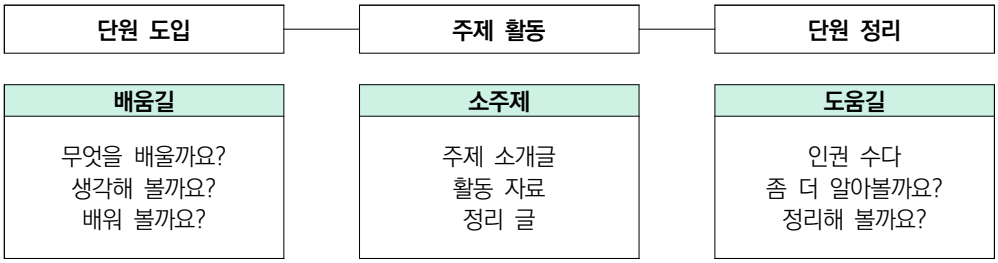
나. 5~6학년

단원	주제	활동 내용	내용 체계 범주
1.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1-1. 우리의 권리를 알아봐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 나에게 중요한 권리 찾아보기 ㉰ 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디자인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2. 인권의 유형 II-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1-2. 쾅!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생각해보기 ㉰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기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2. 인권의 유형 II-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1-3. 학생자치회는 어떤 기구일까요?	㉮ 학생회장의 고민 ㉯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것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1-4. 의견을 모아 제안해요	㉮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 [모퉁이 토의] 우리의 의견 정리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하기 ㉰ 학생자치회 '제안서'를 작성하기	
	1-5. 우리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어요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 ㉯ 참여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 ㉰ 참여 활동 단계 알아보기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2.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2-1. 주위를 둘러봐요	㉮ 우리는 달라요 ㉯ 나와 다름을 인정해요 ㉰ 다르지만 함께 살아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2. 조금 다를 뿐이에요	㉮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 우리학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모두 편리하게 이용해요	II-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3. 너무 빨라요	㉮ 키오스크가 두려워요 ㉯ 이제 두렵지 않아요 ㉰ 만능 키오스크 만들어봐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4. 희망의 땅을 찾아서	㉮ 난민 어린이의 이야기 ㉯ 낯선 곳에 간다면 ㉰ 난민이 온다면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2-5.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 애완동물? 반려동물? ㉯ 권리를 잃어버린 동물들 ㉰ 동물의 권리를 위해	I-1. 인권의 의미와 특징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3.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3-1.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	㉮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 차별 장면을 바꿔주세요! ㉰ 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3-2. 일상 속에 녹아든 차별의 말들	㉮ 일상에 쌓인 먼지 차별의 말 ㉯ 언어 감수성 테스트 ㉰ 차별 없는 말로 바꾸어 봐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3-3.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 청소년 기후 소송 ㉰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II-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3-4. 기후위기와 불평등	㉮ 기후위기 속 인권 ㉯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요? ㉰ 우리도 고통 받고 있어요	III-1. 일상의 인권 문제
	3-5. 기후정의를 위하여	㉮ 당신들이 미래를 훔쳐가고 있다 ㉯ 기후 행동 피켓을 들어요 ㉰ 기후정의 캠페인	II-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III-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제3절 |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구성과 특징

1. 교과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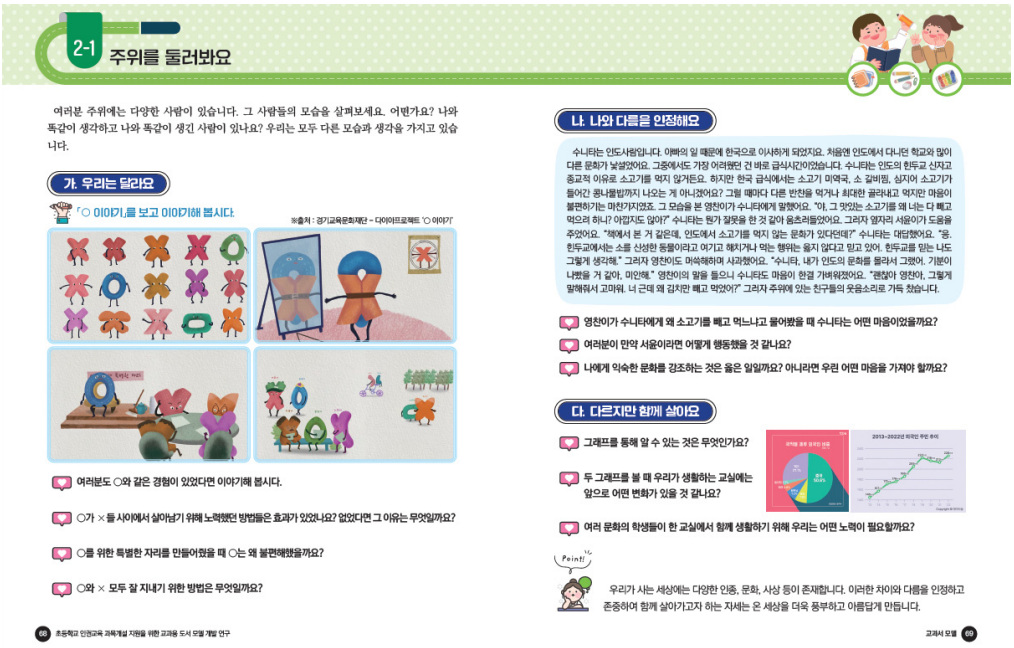
[그림 5-1] 교과서 모델 구성요소와 구성 체제

'단원 도입'에 해당하는 '배움길'에서는 단원에서 배워야할 소주제들을 보여주고 학습계획을 세워보는 '무엇을 배울까요?', 흥미로운 자료와 간단한 발문을 통해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하게 하는 '생각해 볼까요?', 단원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배워 볼까요?'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활동'에서는 단원마다 5개의 소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3~4학년은 소주제마다 2개의 활동 자료를, 5~6학년에서는 3개의 자료와 발문을 제시하여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학생의 의견을 잘 듣고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원 정리'에 해당하는 '도움길'에서는 '인권 수다'를 통하여 토의, 토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였으며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좀 더 알아볼까요?', '정리해 볼까요?'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며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배움길 활동은 1차시 소주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차시별로 맞쪽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주제별로 주제를 소개하는 글과 정리하는 글로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구성 방식은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교과서 구성 방식

2. 지도서 모델

'단원개관'에서는 단원 구성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차시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단원 목표'와 관련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단원 지도 계획'에서는 주제별 학습 제제와 주요 활동 내용을 기술하여 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원 평가 계획'을 성취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지도서는 전체적으로 배움길, 소주제, 도움길로 구성되어 있다, 소주제는 '배움 활동'과 '배움 정리'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는 문제가 많아 '예시 답안'을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활동 TIP'을 추가하였으며 단원 끝부분에는 '자료 인권+'을 통해 읽을거리, 추천 도서, 관련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서 구성 방식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지도서 모델 구성방식

제6장

교과용 도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제6장 교과용 도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관점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에 적절한 관점 및 내용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원들을 교과서 모델 개발진으로 위촉하여 초등학교 3~4학년용 및 5~6학년용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진의 집단적 숙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과서 모델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문연구자 집단과 현장 교원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과용 도서 모델의 완성도 및 현장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문연구자 집단은 다양한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여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교원들은 학교현장에서 체득한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재맥락화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즉각적이면서도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과용 도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이 폭넓게 활용되면서도 초등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단위의 정규과목으로 '인권'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실 그동안의 인권교육은 일부 교과수업의 일부 혹은 창체활동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제한된 조건에서도 다양한 실천 사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지만, 단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년별 위계에 따른 체계성이나 내용의 연속성 및 깊이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한 관점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학교 단위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자율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개발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과용 도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서 모델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홍보용 전단 등을 학교에 배포하는 것과 함께,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인권교육의 관점 및 교과서 개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학교현장에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한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일회적이며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기존 인권교육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한계가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는다. 독립교과로서의 '인권'을 이전과 같은 관점과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채택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과 내용체계를 교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일상의 인권 문제와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지식 습득 및 일상에서의 구체적 실천과 행동이라는 일련의 흐름으로 구성된 교과서 개발의 취지 등이 교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직무연수 외에도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했거나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승인 단계에서 개최하게 되는 '교과용 도서 설명회' 등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홍보 및 관련 연수를

진행할 때 교과용 도서 모델을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가 축적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교원들은 이 교과용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 사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공유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나 연구물은 물론이고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탑재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교과용 도서 모델은 현장 교원들의 실천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개방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2]**. 세종: 교육부.

UN(2004). *Teaching Hunan rights*. 국가 인권위원회 역(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UN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구정화, 조난심, 강명숙, 설규주(2007).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구정화(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3.

구정화, 박새롬(2019).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법교육연구, 14**(2), 1-33.

구정화, 송현정, 박새롬(2020).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21).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 교사. 인권교육. 하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녕(2015). 인권교육의 시각에서 인성교육, 깨달음과 바뀜, 그리고 희망 바라보기. **인간연구, 28,** 65-96.

김은희(2023). 역할과 목적 확인을 통한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 **제24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위정, 김종우, 이가람(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자영, 이로미, 김진희(2019).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법교육연구, 14**(2), 63-92.

김혜진(2018). 도덕 교과서의 인권 친화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 개정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61,** 159-192.

무주초등학교(2023a). **2023학년도 학교교과목 지도서: 민주시민교육 〈인권〉.**

무주초등학교(2023b).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용린, 곽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심성보, 이동기, 장은주, 케르스틴 폴(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파주: 북멘토.

엄수정, 김성희, 장경훈, 문민지, 우라미, 조현희(2021).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엄수정, 정수정, 김종훈(2021). 정의지향적 관점에 비추어 본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분석: 경기도교육청『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80,** 9-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국가인권조약집.** 사람생각.

이쌍철, 김정아, 김미숙, 김진희, 이호준, 김영식, 김자영, 이현주(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권혜정(2017).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 내용의 계열 분석 및 구성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95-121.

이정연, 김명랑, 권경림, 최보미(2020).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최애영(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3~4학년).** 파주: 해냄에듀.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조승주, 최애영, 최은경(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5~6학년).** 파주: 해냄에듀.

정연미, 윤순진 (2014).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일 시민교육-정치교육원의 웹페이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4), 107-136.

조주현(2019). 자유주의 시민성과 도덕과 인성교육의 과제. **윤리교육연구, 51**, 1-37.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서울: 교양인.

최성환(2011).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문제 –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경계에서 –. **철학탐구, 30**, 348-388.

Adami, R. (2014). Human rights for more than one voice: Rethinking political space beyond the global/local divide. *Ethics & Global Politics, 7*(2), 163-180.

Ahmed, A. K., Martin, J., & Uddin, S. (2019).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17: Wrestling with ideology, universality and agency. *Human Rights Quarterly, 42*(1), 195-216.

Bajaj, M. (2012) *Schooling for Social Change: The Rise and Impact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India.* London: Continuum.

Banks, J. (2021).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and dimensions. In J. A. Banks (Ed.), *Transforming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pp. 42-52).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Becker, A. (2021). Decolonial human rights education: changing the terms and content of convers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Review, 4*(2), 49-68.

Beland, k. (2003). *Eleven principles sourcebook: How to achieve quality character education in K-12 schools.* Washington DC: Character.org.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New York: Polity.

Butler, C. (Ed) (2012) *Child rights: The movement, international law and opposition*, Purdue, IN: Purdue University Press.

Council of Europe(2020).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2nd edition).

Coysh, J. (2014). The dominant discourse of human rights education: A critique.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6*(1), 89-114.

Geyer, R.(2019). *Bundeszentrale Minderheiten und Toleranz.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Günther, Gugel(2017). *Alltäglicher Rassismu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Hung, R. (2012) Being Human or Being a Citizen? Rethinking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Light of Agamben and Merleau-Ponty.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2* (1), 37-51.

Jerome, L. (2012) Children's Rights and Teachers' Responsibilities: A Case Study of Developing a Rights Respecting Initial Teacher Education Programme. In R. C. Mitchell and S. A. Moore (Eds) *Politics, Participation and Power Relations* (pp.101-118). Rotterdam: Sense Publishers.

Jerome, L. (2018). Hypocrites or heroes? Thinking about the role of the teacher in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Review, 1*(2), 46-64.

Jerome, L., Emerson, L., Lundy, L., & Orr, K. (2015). *Teaching and learning about* child rights: A study of implementation in 26 countries. Geneva: UNICEF.

Likckona, T. (2018). Reflections on Robert McGrath's "What is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14*(2), 49-57.

McGaughey, F., Hartley, L., Banki, S., Duffill, P., Stubbs, M., Orchard, P., Rice, S., Berf, L., & Kerdo, P. P. (2019). 'Finally an academic approach that prepares you for the real world': simulations for human rights skills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Review, 2*(1), 70-93.

Moghli, A. M. (2020). Re-conceptualising human rights education: from the global to the occupied.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Education, 4*(1).

Osler, A., & Starkey, H. (2018). Extend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for cosmopolitan citizenship. *Educational Review, 70*(1), 31-40.

Potvin, M. and Benny, J. (2013). *Children's rights education in Canada: A particular look at the Quebec school system.* Quebec: Universite du Quebeca Montreal.

Roche, J. (1999) Children: Rights,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Childhood, 6*(4), 475-493.

Spivak, G. C. (2004). Righting wrong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523-581.

Starkey, H. (2015). *Learning to live together: Struggle for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Press.

Tibbits, F. (2002) Understanding what we do: Emerging mode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8(3-4), 159-171.*

Tibbits, F. (2005a) Transformative learning and human rights education: Taking a closer look. *Intercultural Education, 16(*2), 107-113.

Tibbits, F. (2008) Human Rights Education, In M. Bajaj (Ed.) *Encyclopaedia of Peace Education* (pp. 99-108).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Tibbits, F. (2018). Human rights education: The good surf and reclaiming human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36*(1), 64-74.

UNESCO(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마리: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Williams, M. M. (2000). Models of character education: Perspectives and developmental issue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9*(1), 32-40.

Williams, M. M. & Schaps. E. (1999). *Character education: the foundation for teacher education: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Yang, K. W. (2015). Afterword: Will human rights education be decolonising? In S. R. Katz & A.M. Spero (Eds.), *Bringing human rights in US classrooms. Exemplary models from elementary grades to university* (pp. 225-236).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Zembylas, M. (2017). Re-contextualising human rights education: Some decolonial strategies and pedagogical/curricular possibilities. *Pedagogy, Culture and Society, 25*(4), 1-13.

Zembylas, M., & Bozalek, V. (2014). A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human rights: The contribution of the affective turn and posthumanism. *Acta Academica, 46*(4), 29-47.

Zembylas, M., & Keet, A. (2019). *Critical human rights education: Advancing social justice oriented educational praxis*. New York, NY: Springer Link.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15일 인쇄 2023년 12월 15일 발행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4
F A X	02)2125-0917
E-mail	hoso@humanrights.go.kr
I S B N	978-89-6114-598-5 94370 978-89-6114-763-7 94370(전3권) 비매품
인 쇄	Design세창 (T.1544-1466)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